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색채를 이용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 전공

최 지 은

색채를 이용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 전공

최 지 은

인 준 서

최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논문개요

개인의 사상과 개성이 중요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좋아하는 색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고유의 색을 파악하고 색을 입히는 행위인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는 점차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웨딩 메이크업에서도 색채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개개인의 피부색에 맞추어 알맞은 색채를 활용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도출한 후, 퍼스널 컬러에 따라 피부 톤을 분류하여 설문에서 도출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적용하여 실험하고자 한다. 또한 퍼스널 컬러에 따른 색채의 활용으로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웨딩 메이크업과 퍼스널컬러, 그리고 색채를 이용한 이미지 상승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육안 측정과 분광 측색계 Minolta CM-2600d를 이용하여 찬 피부와 따뜻한 피부를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도출한 후 차가운 피부 톤과 따뜻한 피부 톤에 적용하여 이미지와 피부색상의 변화에 따른 색채 제안을 한다.

넷째, 평가설문을 통해 색채활용과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만 19세에서 만 35세 미만의 미혼여성들에게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도출한 결과 로맨틱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로맨틱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

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육안 측정과 분광 측색기 Minolta CM-2600d를 이용하여 피부색을 측정한 결과 차가운 피부 톤은 블루 언더베이스(blue under base)의 자색 기미가 있는 붉은 피부 톤을 가지고 있었으며 L^* , a^* , b^* 의 평균값은 L^* 63.50, a^* 10.59, b^* 16.82으로 cool/light유형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 결과를 얻어 실험자의 피부색이 차가운 피부 톤이라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따뜻한 피부 톤은 붉은 기가 낮은 노란색상의 옐로 언더 베이스(yellow under base)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부색의 평균값은 L^* 는 66.01, a^* 는 9.14, b^* 는 17.59으로 soft/warm유형에 가장 유사한 데이터 결과를 얻어 실험자의 피부색이 따뜻한 톤이라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적색도가 높은 차가운 피부 톤에 어울리는 베이스 색채로는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 가미되어 있는 베이스 색상을 이용하여 메이크업하면 붉은 기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황색도가 높은 따뜻한 피부 톤은 핑크 계열의 색상이 가미되어 있는 베이스 색상을 이용하면 피부의 노란 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다섯째, 적색도가 높은 차가운 피부 톤의 색조 메이크업은 붉은 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도가 낮은 푸른 계열의 색상을 이용하여 메이크업하는 것이 붉은 기미를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적색도가 낮고 황색도가 높은 따뜻한 피부 톤은 채도가 높은 계열의 바이올렛 색상을 이용하면 노란 기미의 피부색을 감소할 수 있는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피부 톤과 상반된 색조 메이크업의 결과 피부 톤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정돈되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 색채에 맞는 색조 메이크업의 적용은 피부 톤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차가운 피부 톤에 로맨틱한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옐로우 계열의 베이스 색상으로 피부를 표현하고 적색도와 채도가 낮은 푸른 계열의 라벤더 색상의 색조 메이크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따뜻한 피부 톤에 로맨틱한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핑크 계열의 베이스 색상으로 피부메이크업을 하고, 색조 메이크업으로 로맨틱의 이미지에 알맞은 페일(pale)한 푸른 색조를 쓰되, 적색도가 높고 채도가 높은 색상의 라벤더 색상을 이용하여 메이크업 하는 것이 이미지가 상승하는 웨딩 메이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5세 미만의 미혼여성들로 한정하고 웨딩 메이크업의 로맨틱한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후속연구에서는 설문대상자 거주지, 실험자의 다양한 피부 톤을 확대 조사하여 폭 넓은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와 색채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색채의 지각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성의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웨딩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4
2. 퍼스널 컬러의 이론적 고찰	16
3. 색채에 따른 이미지 상승효과	25
III. 연구방법	30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0
2. 측정도구	32
3. 자료분석	33
4. 실험 자극물 제작	33
IV. 결과	40
1. 웨딩 메이크업 선호도 조사결과	40
2. 이미지 선호도와 퍼스널컬러 진단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색채 제안	49
3. 로맨틱 웨딩 메이크업 지각 평가	63

V. 결론 및 제언 7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그림 목 차

<그림 1> 찬 피부 톤의 실험자	34
<그림 2> 따뜻한 피부 톤의 실험자	37
<그림 3> 찬 피부 톤의 로맨틱한 웨딩 메이크업	52
<그림 4> 차가운 피부 톤의 상반된 색채 연출	56
<그림 5> 따뜻한 피부 톤의 로맨틱한 웨딩 메이크업	59
<그림 6> 따뜻한 피부 톤의 상반된 메이크업 연출	62

표 목 차

<표 1> 웨딩 이미지 분류기준	6
<표 2> 퓨어 이미지	8
<표 3> 로맨틱 이미지	9
<표 4> 클래식 이미지	11
<표 5> 노블 이미지	12
<표 6> 피스플 이미지	14
<표 7> 피부 톤 유형분류	22
<표 8> 색채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분류	27
<표 9> 톤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분류	29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31
<표 11> 설문지 문항 분류	32
<표 12>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차가운 피부 톤의 측정값	35
<표 13>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따뜻한 피부 톤의 측정값	37
<표 14> 웨딩 메이크업 시 피부메이크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피부 색상	40
<표 15>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피부와 눈 메이크업 질감	41
<표 16>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42
<표 17> 웨딩 메이크업 시 이미지 변화가 큰 수정메이크업	43
<표 18>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44
<표 19> 퍼스널 컬러 관련 문항	45
<표 20> 연령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	46
<표 21> 직업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	47
<표 22> 최종학력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가장 선호 하는 이미지 차이	48
<표 23> 차가운 피부의 로맨틱한 이미지 적용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51
<표 24> 색채 제안	53
<표 25> 따뜻한 피부의 로맨틱한 이미지 적용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58
<표 26> 로맨틱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색채	63
<표 27> 차가운 피부 톤에 따른 베이스 색채	64
<표 28> 따뜻한 피부 톤에 따른 베이스 색채	64
<표 29> 차가운 피부 톤에 잘 어울리는 색조 메이크업 색상	65
<표 30> 따뜻한 피부 톤에 잘 어울리는 색조 메이크업 색상	66
<표 31> 퍼스널 컬러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변화 정도	67
<표 32> 웨딩 메이크업 후 피부 톤 변화	67
<표 33> 상반된 색조 활용 후 피부 톤 변화	68
<표 34>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69
<표 35> 피부 톤에 따른 색채메이크업 후 이미지 수정정도	70

I. 서론

1990년 대 후반부터 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자신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9년도 석사 졸업생 중 47.9%는 여성이며 1985년도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9.2%로 나타났으며¹⁾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양상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결혼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결혼식을 통상 치루어야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던 예전과는 달리 현대 여성들은 자신만의 확실한 예식스타일의 기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예식을 치르기를 원한다.

유정희(2008)²⁾에 따르면 예식을 앞둔 여성들이 타 기관(예식장, 호텔) 내에 소속되어 있는 미용실보다 독립된 메이크업 전문샵에서 웨딩 메이크업을 받기를 원한다는 결과가 조사되었다. 즉, 다수의 여성들이 전문성이 높은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미지에 맞춰진 전문 웨딩 메이크업을 원한다는 결과로 풀이 할 수 있다.

2006년도까지 주 혼인 연령층이었던 20대 후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0년도에는 30대 초반의 연령대가 전체 혼인의 36.6%로 조사되었다.³⁾ 이렇듯 점차 결혼의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 예전에 비

1) 주재선, 「2009년 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p. 88.

2) 유정희, 「여성들의 웨딩코디네이션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08, p. 90.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대전:통계청, 2010, pp.37-39.

해 다소 나이가 많은 신부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메이크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대 여성들은 개인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하며 획일화 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웨딩 메이크업을 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에 맞춘 웨딩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색채의 활용이 중요하며 컬러진단을 통한 색채와의 연관성을 높인 전문 메이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된 퍼스널 컬러⁴⁾⁵⁾⁶⁾⁷⁾나 웨딩 선호도 및 메이크업⁸⁾⁹⁾, 색채 메이크업 관련¹⁰⁾ 등 분야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퍼스널 컬러를 웨딩 메이크업에 적용한 색채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 컬러에 따른 피부 톤을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색채를 사용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웨딩 메이크업 분야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색채와 웨딩 메이크업에 관한 객관적인 이론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피부 톤과 색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를 통하여 메이크업에서 피부 톤의 다른 색채메이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메이크업 시 보다 전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색채를 이용한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4) 신향선,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72-85.
 - 5) 이해영, 「색조화장에 있어서 퍼스널 컬러 인지도와 유형별 색채 선호도 조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82-85.
 - 6) 홍미숙, 「한국인의 퍼스널컬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81-89.
 - 7) 진형여,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퍼스널 컬러 분석」,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 98-105.
 - 8) 유정희(2008), op. cit., pp. 90-95.
 - 9) 조민희, 「웨딩코디네이션의 선호도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87-89.
 - 10) 이정미, 「한국여성의 메이크업 색채 이미지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70-72.

첫째, 웨딩 메이크업과 퍼스널컬러, 그리고 색채를 이용한 이미지 상승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육안 측정과 분광 측정계 Minolta CM-2600d를 이용하여 찬 피부와 따뜻한 피부를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도출한 후 차가운 피부 톤과 따뜻한 피부 톤에 적용하여 이미지와 피부색상의 변화에 따른 색채 제안을 한다.

넷째, 전문가 평가단의 설문을 통해 색채활용 및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웨딩 메이크업에 한정되어있으며 조사대상의 연령대와 지역이 만 19세에서 만 35세 미만의 미혼여성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선호도의 결과에 따라 미혼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맨틱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웨딩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웨딩 메이크업의 개념

인간은 본능과 이성의 끊임없는 연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결혼은 본능과 이성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결혼은 사랑이라는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되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이성적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게 된다.

즉, 결혼(結婚)이란 ‘혼인을 하여 맺어 진다’는 뜻으로 한 쌍의 남녀가 만나 서약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는 행사로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 성적 만족을 통한 정서적·감정적 안정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는 종족 계승의 사회적 승인을 뜻한다.¹¹⁾

결혼을 의미하는 웨딩(wedding)의 어원은 앵글로 색슨어로 wedd 즉,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으로써 신부의 집에 지불하는 물건이나 돈을 의미하며 웨딩은 ‘번식의 목적으로 신부를 산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¹²⁾

현대적 관점 재해석 하면 웨딩이란 성인 남녀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하여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¹³⁾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웨딩 메이크업(wedding make up)이란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11) 이현주 외3인, 「Wedding make up」, 서울: 훈민사, 2004, p. 12.

12) 이희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토털 웨딩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1.

13) 오경희,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웨딩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5.

결합인 결혼식에서 주인공인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면은 부각시켜주고, 단점은 최대한으로 보완하여 심리적인 부분 또는 외관상으로 가장 신부에게 어울리는 화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화장이라고 말하는 메이크업(make up)은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게 하고 단점부분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미적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분류

웨딩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분류기준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소영(2003)¹⁴⁾은 드레스의 이미지에 따라 순수성, 관능성, 역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배형자(2002)¹⁵⁾, 김효정(2006)¹⁶⁾은 표현기법에 따라 이미지를 귀여운, 자연스러운, 화려한 등으로 분류하였다. 배은주(2008)¹⁷⁾, 오경희(2009)¹⁸⁾, 안금희(2011)¹⁹⁾는 신부의 이미지 선호도, 장소에 따른 연출방법과 분위기, 시대흐름 속 가장 많이 나타난 형용사적 이미지에 따라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색의 형용사적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질감에 따른 웨딩화보사진을 기준으로 퓨어, 로맨틱, 클래식, 노블, 피스폴의 5가지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14) 김소영, 「웨딩드레스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25-41.

15) 배형자, 「웨딩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54-60.

16) 김효정 외 3인, 「wedding coordination」, 서울; 청구문화사, 2006, pp. 15-23.

17) 배은주, 「신부의 추구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5-8.

18) 오경희(2010), op. cit., pp. 12-23.

19) 안금희, 「신부이미지별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경향」,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 6-11.

<표 1> 웨딩 이미지 분류기준

연구자	분류 기준	이미지
김소영(2003)	드레스 이미지	순수성, 관능성, 역사성
배형자(2002)	표현 기법	귀여운, 자연스러운, 화사한
김효정(2006)	얼굴형태와 표현기법	큐트, 엘레강스, 섹시
배은주(2008)	신부의 선호도	엘레강스, 클래식, 모던, 로맨틱, 네추럴
오경희(2009)	장소에 따른 연출방법과 분위기	엘레강스, 모던, 로맨틱, 네추럴, 클래식
안금희(2011)	시대흐름 속 가장 많이 나타난 형용사적 이미지	네추럴, 모던, 로맨틱, 엘레강스

(1) 퓨어 이미지 (Pure Image)

퓨어 이미지 배색은 페일(pale)톤과 베리 페일(very pale)톤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깨끗한 느낌을 준 배색과 콘트라스트(contrast)가 약하게 느껴지는 유사한 색조끼리 배색한다.²⁰⁾ 이러한 배색은 순수하며 여성스럽고 맑은 느낌을 준다.

퓨어한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색조보다는 밝고 화사한 색조가 어울리며 얇고 가벼운 메이크업이다. 어리고 순수한 느낌이 나며 피부 톤이 밝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퓨어 이미지의 피부 메이크업은 색상을 최대한 배제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부메이크업의 중요도가 높다. 피부 메이크업의 단계는 피부 톤을 정리하는 언더 단계와 피부결과 피부색을 정돈하는 단계인 파운데이션 단계 그리

20) I.R.I 색채연구소, 「Color combination best color selection for beautiful design」, 서울; 영진닷컴, 2005, p. 73.

고 파운데이션의 유분기 제거와 피부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파우더 단계가 있다.²¹⁾

피부표현의 언더 단계에 핑크나 바이올렛 코렉터(violet corrector)를 사용하여 피부 톤을 밝게 표현한 후 옐로우보다는 핑크 톤이 많이 들어간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색과 결점을 보완해준다. 바이올렛(violet)과 베이지(beige)계열의 파우더를 섞어 마무리한다.

눈 메이크업의 색채 사용은 피부 톤을 더욱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해야 하며 피부색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오렌지나 핑크 베이지 계열을 사용한다.²²⁾ 질감은 실키(silky)한 질감을 활용하여 건조해 보이지 않는 매끈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한다.

퓨어한 볼 메이크업은 채도가 낮은 밝은 핑크 컬러로 연출하고 입술 메이크업은 본인의 입술 색과 크게 다르진 않아야 하며 오렌지 빛이 함유된 환한 핑크 톤의 립 글로즈로 실키(silky)한 텍스처(texture)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한다.²³⁾

따라서 퓨어이미지는 오렌지, 핑크, 퍼플 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페일, 베리 페일한 색조의 실키한 질감으로 메이크업한다.

퓨어 메이크업의 이미지 특징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21) 한보현,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 42.

22) 김미란, 「한국섬유표준색을 이용한 퍼스널컬러 진단도구 연구개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14.

23) 김주경 외 3인, 「color story」, 서울; 교문사, 2010, p. 66.

<표 2> 퓨어 이미지

분 류	특 징	
형용사적 이미지	산뜻한, 깨끗한, 청초한, 청결한, 순수한, 상쾌한	
색채특징	색상	오렌지, 핑크, 퍼플, 베이지, 계열
	색조	페일(pale), 베리 페일(very pale)톤의 유사색조 배색
	질감	실키(silky)
이미지		

(2) 로맨틱 이미지 (Romantic Image)

로맨틱 이미지는 모든 예술 분야에 걸쳐 밝고 장식적이며 리드미컬한 곡선을 중심으로 흐르는 듯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부드럽고 섬세하며 우아한 디자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²⁴⁾

로맨틱은 ‘부드러움·감성적·몽환적’인 형용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봄에 잘 어울리는 배색이다.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과 감미로운 단맛을 느끼게 하는 색상들이 주조색 역할을 하며 핑크, 골드, 퍼플계열이 사용된다.²⁵⁾ 주로 사용되는 색조는 베리 페일, 페일, 라이트(light)가 주를 이루며 ‘맑은’과 ‘온화함’의 배색이미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로맨틱한 이미지의 피부 톤은 은은하며 기존의 피부색이 올라와 보이지 않

24) 김영현 외1인,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4(7), 2004, p. 3.

25) 송미영 외3인, 「Beauty color theory」, 서울: 청구 문화사, p. 131.

게 보다 화사하게 표현한다. 피부 톤을 정돈해주기 위해 루미네센스(luminescence)의 질감의 펄 베이스를 사용해주어 피부의 질감을 매끈하게 만든 후 핑크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의 결점을 보완한다.

눈 메이크업에서는 페일, 그레이쉬 톤을 아이홀 전체에 퍼주고 덜 톤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며 볼 메이크업은 붉은 느낌보다는 푸른 느낌의 핑크색상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²⁶⁾

입술 메이크업 역시 볼과 유사한 푸른 느낌의 누드핑크 계열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색상을 전체적으로 동일배색 한다. 로맨틱 메이크업의 이미지 특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로맨틱 이미지

분 류	특 징	
형용사적 이미지	부드러운, 감성적, 몽환적, 부드러운, 사랑스런, 감미로운	
색채특징	색상	핑크, 골드, 퍼플 계열
	색조	페일(pale), 그레이쉬(grayish), 라이트(light)
	질감	루미네센스(luminescence)
이미지		

26) 한명숙, 「웨딩보떼」, 서울; 청구문화사, 2003, p. 92.

(3) 클래식 이미지 (Classic Image)

클래식(classic) 이미지란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유행에 상관 없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말한다.²⁷⁾ 색상은 안정감이 있는 전통미를 지닌 브라운 계열과 와인(wine), 다크그린(dark green), 네이비(navy), 그레이(Gray) 등으로 베이지 계열이나 그레이 퍼플(gray purple) 계열, 골드 계열이 가미되어 럭셔리함을 더해준다. 색조는 다크(dark) 톤, 딥(deep) 톤이 주를 이뤄²⁸⁾ 오랜 세월의 깊이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클래식한 피부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다운 된 덜(dull) 톤의 느낌이 많이나며 얼굴의 윤곽이 또렷하게 살아 있어야 되므로 음영감이 있는 피부메이크업이어야 한다. 이목구비가 있는 중앙에는 피부 톤 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얼굴 외곽 쪽은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해 메이크업을 한다.²⁹⁾

눈 메이크업은 채도가 높은 컬러보다는 톤이 어두운 덜 톤과 딥 톤을 사용하여 음영감 있는 눈의 연출에 중점을 둔다.

볼 메이크업은 클래식의 주조색인 골드나 브라운계열에 맞게 산호색이 가미되어 있는 핑크계열의 볼터치를 얼굴 중앙에서 시작하여 광대뼈를 감싸주듯이 메이크업 한다.³⁰⁾

입술 메이크업은 누드계열 중에서도 베이지가 섞인 워م(warm)톤의 핑크 계열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눈으로 시선이 가게 한다. 클래식 메이크업의 이미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27) 이경희 외 2인,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교문사, 2008, p. 145.

28) 송미영 외 3인(2009), op. cit., p. 145.

29) Kevyn aucoin, 김광숙 역, 「making face」 서울; 동서교류, p. 24.

30) 김주경 외 3인(2010), op. cit., p. 70.

<표 4> 클래식 이미지

분 류	특 징	
형용사적 이미지	고전적, 전통적, 중후한, 분위기 있는, 보수적인	
색채특징	색상	브라운, 골드,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색조	다크(dark), 딥(deep)
	질감	쉬머(shimmer)
이미지		

(4) 노블 이미지 (Noble Image)

노블은 ‘고상함 격식 있는 엄격한 점잖은 우아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가구 등에서 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색상으로는 빨강색(red)계열과 주황색(yellow red)계열의 어두운 색들이 많이 쓰이며,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조를 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탁하고 어두운 느낌이다.³¹⁾

노블 이미지의 피부메이크업은 딥 톤, 다크 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도 음영감이 많아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윤곽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 쉬머(shimmer)한 펄 베이스를 이용하여 얼굴을 매끄럽게 하되 펄 베이스의 펄이 옐로우가 도는 골드를 사용하여 얼굴전체가 희끗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피부 자체에서 광이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해준다.³²⁾

31) I.R.I 색채연구소(2005), op. cit., p. 111.


피부색과 유사한 옐로우 계열의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결을 완성하여 준 뒤 미네랄 성분의 들어있는 파우더로 가볍게 마무리 한다.

눈 메이크업은 아이 홀 전체에 덜톤의 브라운 계열 새도우로 베이스색채를 사용한 뒤 다크한 색상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강하게 넣는다. 음영감이 많을수록 좋다.

볼 메이크업 색상은 붉은 기가 많으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강해보일 수 있으므로 광대의 라인에 따라 부드럽게 오렌지 계열의 핑크색 블러셔로 가볍게 터치해준다. 입술메이크업은 채도가 낮은 중명도의 자연스러운 핑크계열의 색상에 골드펄이 함유된 립스틱을 이용하여 메이크업한다.³²⁾

노블 메이크업의 이미지 특징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 5> 노블 이미지

분 류	특 징	
형용사적 이미지	고상한, 격식있는, 엄격한, 점잖은, 우아한, 품위있는	
색채특징	색상	오렌지 브라운, 브라운, 골드, 퍼플
	색조	다크(dark), 딥(deep), 덜(dull)
	질감	쉬머(shimmer), 글로시(glosy)
이미지		

32) Bobbi brown, 「make up manual」, 서울: 중앙m&b, 2009, p. 137.

33) 김효정 외 3인(2006), op. cit., p. 80.

(5) 피스플 이미지 (Peaceful Image)

피스플의 색상은 저채도의 베이지와 그레이가 주를 이루며, 색조는 라이트 그레이쉬(light grayish)로 흐릿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인 배색은 유사 색조 배색을 하여 안정적인 느낌이다.

피부메이크업은 피스플의 색상과 색조가 저채도, 증명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감을 적게 사용하되 화사한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피부색과 유사한 베이지 계열의 파운데이션과 펄 베이스를 섞어 피부에 발라줌으로 실키하게 피부결을 정돈 해주고 파우더로 가볍게 마무리 한다.³⁴⁾

눈 메이크업은 안 한 듯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채도가 낮은 샌드 베이지 (sand beige)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눈에 약간의 음영감만 표현한다.³⁵⁾

볼 메이크업은 워م(warm) 톤의 베이지계열로 피부와 눈 메이크업을 하였으므로, 그 색상에 어울리는 환한 피치계열의 색상으로 광대를 감싸주듯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한다.

입술메이크업은 블러셔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피치색상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실키(silky)한 질감의 입술 메이크업을 한다.³⁶⁾

피스플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34) Robert jones, 최민령 역, 「makeup makeovers」,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8, p. 50.

35) Robert jones, 김민경 역, 「makeup makeovers ; weddings」,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8, p. 118.

36) 김효정 외 3인(2006), op. cit., p. 78.

<표 6> 퍼스폴 이미지

분 류	특 징	
형용사적 이미지	잔잔한, 그윽한, 정적인, 조용한, 평화로운, 정숙한	
색채특징	색상	베이지, 샌드 베이지, 그레이
	색조	라이트 그레이쉬 (light grayish)
	질감	쉬머(shimmer), 매트(matt)
이미지		

3) 웨딩 메이크업과 퍼스널컬러에 따른 이미지 지각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본능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개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⁷⁾

한편, 이미지(image)는 사전적으로 형태나 모양, 느낌, 영상, 관념 등을 나타내는데, 사람의 경우 어느 대상의 일련의 신념, 태도, 인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⁸⁾ 현대사회에서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특정 인상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

37) 박선희, 「20세기 초 회화작품의 컬러이미지 분석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37.

38)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의 개념 정립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7.

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종숙, 김정림(2008)³⁹⁾은 퍼스널시스템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컬러에 대한 연구에서 옐로우 베이스 피부 톤에 옐로우베이스 색채와 블루 베이스 색채를 적용하고 블루 베이스 피부 톤에 옐로우 베이스색채와 블루베이스 색채를 각각 적용하여 이미지 지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웨딩 메이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 색채 진단을 통한 메이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잘 어울린다’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퍼스널컬러 진단에 따라 피부 톤을 분석하고 그에 알맞게 색채를 활용하는 것이 이미지 지각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명숙, 선정희(2001)⁴⁰⁾는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우아한, 현대적, 귀여운, 화려한 이미지로 명명하여 눈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 입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 눈과 입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시연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우아한 이미지에는 눈과 입에 모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 효과적이며, 현대적 이미지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메이크업에 따라 이미지의 지각차이가 변동이 있다고 하였다.

이혜정, 조진아(2007)⁴¹⁾의 연구는 개인색채유형 중 피부색과 헤어컬러 이미지의 연관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통한 고찰로 피부색에 따라 어울리는 색채와 어울리지 않는 색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헤어 색채의 활용에 따라 이미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피부색에 따른 헤어컬러는 얼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수단이라고 하였다.

39) 안종숙, 김정림, 「퍼스널컬러 시스템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 학회지, 4(1), 2008, pp. 71-84.

40) 한명숙, 선정희,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요소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7(2), 2001, pp. 73-85.

41) 이혜정, 조진아, 「개인색채유형 분류에 있어서 피부색 유형과 헤어컬러 이미지와의 관련성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3(3), 2007, pp. 1151-1162.

한보현(2009)⁴²⁾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에 대한 연구에서 얼굴형태 계측을 통해 얼굴형을 분류하여 피부, 눈, 입, 볼, 노 메이크업의 5가지 스타일을 적용한 후 그 변화에 따른 얼굴 형태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미지 지각 요인 분석 결과 세련성, 품위성, 온유성, 성숙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눈 메이크업 시에는 세련된 이미지로, 볼 메이크업 시에는 온유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성별 지각에 있어서는 여성은 눈 메이크업을, 남성은 볼과 피부메이크업을 세련되게 평가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웨딩 메이크업과 퍼스널컬러는 이미지 지각의 직접적인 단서가 되므로 이미지 상승효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메이크업으로 자신의 외적 변화를 표현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 컬러 와 웨딩 메이크업, 색채를 이용한 이미지 상승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퍼스널 컬러의 이론적 고찰

1) 퍼스널 컬러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퍼스널 컬러의 개념

퍼스널 컬러의 어원은 프로소폰(prosopon)과 라틴어의 페르소나(persona)에서 유래한다. 이는 그리스와 로마의 연구에서 배우의 외관, 역할, 성질(개성), 개인의 존엄성으로 구분되어 해석되었다.⁴³⁾

42) 한보현(2009), op. cit., pp. 66-75.

그리스어 ‘프로소폰’과 라틴어 ‘페르소나’는 무대에서 사용되는 가면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프로소폰은 ‘얼굴’이라는 뜻과 함께 ‘개별적인 표현’도 함께 의미하며, 페르소나는 ‘연극의 등장인물’의 뜻과 함께 ‘외격인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⁴⁴⁾

김미경(1999)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색이 있다. 색이 없는 존재는 없다.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다.”⁴⁵⁾ 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부색은 물론,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등 사람 개개인마다 고유의 색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퍼스널 컬러라고 하며, 퍼스널 컬러는 사람의 각각 특징적인 색채표현에 의해 그 사람의 인격, 개성, 역할을 나타내는 지적기능을 갖는 중요한 영역⁴⁶⁾중에 하나이다.

한상윤(2009)⁴⁷⁾은 “개인색채의 조화를 통해 보다 나은 이미지를 만들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개인색채와의 조화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색과 대상물의 색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퍼스널 컬러는 자신의 타고난 피부의 색채, 또는 연극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의 색과 같이 자신이 인생의 무대에서 어떠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골격, 인상, 이미지의 색채, 그의 내적인 성격, 색채 등 여러 가지 의미⁴⁸⁾로 해석될 수 있다.

43) 박화순, 「대학생의 퍼스널컬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복색 이미지 평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4.

44) 아론 구레비치, 이현주 역, 「개인주의의 등장」, 서울; 새물결, 2002, pp. 159-160

45) 김미경,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 서울; 명진 출판, 1999, p. 189.

46) 송미영 외 3인(2009), op.cit., p. 155.

47) 한상윤, 「60세 이상 여성의 피부색과 퍼스널 컬러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4.

48) 홍미숙(2005), op. cit., p. 6.

(2) 퍼스널 컬러의 구성요소

퍼스널 컬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미지 등을 의미하기도 하며 미용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피부, 모발, 눈동자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을 의미함⁴⁹⁾과 동시에 저마다 타고난 컬러를 강조하고 개성을 파악하여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색을 가리켜 퍼스널컬러라 한다.

따라서 퍼스널컬러의 구성요소를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색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피부색

사람의 피부색은 인종이나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르며 건강상태나 스트레스 정도에 의해서 변화된다. 피부색은 태어 날 때부터 갖는 고유색으로 헤모글로빈(hemoglobin)에 의해 적색, 카로틴(carotin)에 의해 황색, 멜라닌(melanin)에 의한 갈색이라는 세 가지의 색소로 만들어져 있으며, 각각의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분포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되는 것이다.⁵⁰⁾

또한, 피부빛깔은 진피표층의 모세혈관 내의 혈액의 빛깔과 표피 및 진피 내의 색소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데 표피층의 두께나 그 밖의 병적 색소의 출현에 의해 변한다. 혈액(hemoglobin)이 많으면 붉은색을 띠고, 적으면 창백해 보이며 정맥혈이 정체되면 청색을 띠거나 좀 검게 보이게 된다. 표피의 멜라닌이 증가하면 황갈색이나 갈색으로 보이고 카로틴이 많으면 노란색을 띠게 된다.⁵¹⁾

49) 한명숙(2003), op. cit., p. 75.

50) 김수정, 「퍼스널 컬러 진단에 따른 메이크업 색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5 p. 7.

51) 한국색채학회, 「색채가치 세상」, 서울: 국제, 2001, p. 158.

② 머리카락 색

모발의 빛깔은 흑색에서 브라운, 그레이, 황백색(금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모간 속의 멜라닌색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다.⁵²⁾

멜라닌 색소는 흑색과 갈색 모발과 관련 있는 유멜라닌(eumelanin)과 금발, 적황색과 빨간색 모발에 관련되는 페오멜라닌(Phomelanin)으로 나눈다. 특히 색상에 관련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을 원료로 하여 형성되는 흑 멜라닌, 적 멜라닌, 혼합 멜라닌 등은 과립을 형성하여 멜라닌의 유형과 분포, 양에 따른 요인에 의해 모발의 밝기를 결정시켜 사람마다 독특한 모발 색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멜라닌의 유형과 과립의 크기에 따른 흑색, 적색, 금발 등의 다양한 모발 색상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⁵³⁾

붉은 머리의 색상은 붉은 색소와 검정 색소에 의해 나타나며, 금발머리는 붉은 색소와 노란 색소의 혼합인 결과색이다. 모래 빛 갈색머리는 붉은 색, 갈색, 검정색 색소의 혼합에 의해 색소가 나타나며 흰머리는 멜라닌 색소가 합성이 되지 않아 색을 나타낼 수 없는 머리색이다.⁵⁴⁾

③ 눈동자 색

눈은 안구와 시신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안구벽은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 가장 바깥층에 각막과 각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막은 안구벽 전반부의 1/6-1/5을 차지하며 흔히 검은자위라 하는 부분이다. 홍채는 중막의 전단부로서 중앙에 원형의 동공이 있고 원반 모양의 얇은 막으로 되어⁵⁵⁾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눈동자의 색을 결정하는 부분

52) 이명선 외 2인, 「미용색채학」, 서울; 군자출판사, 2005, p. 112.

53) 김경순 외 4인, 「모발관리학」, 서울; 청구문화사, 1995, p. 38.

54) 김수정(2005), op. cit., p. 8.

55) 이명선 외 2인(2005), op. cit., p. 113.

이 된다. 홍채의 색소의 양과 홍채 내에서의 색소의 위치, 혈과, 광학적 영향 등에 의해 눈의 색은 다양한 색을 나타낼 수 있다.⁵⁶⁾

2) 퍼스널 컬러에 따른 피부 톤 분류

파장은 빛의 에너지를 뜻하며 파동이 전달될 때의 마루(파동의 윗부분, peak)에서 마루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그 길이가 길면 장(長)파장, 짧으면 단(短)파장이라고 하며 빨강색일수록 장파장에 속하고, 파란색의 빛일 때에는 단파장에 속한다.⁵⁷⁾

장파장 쪽의 적외선은 열작용을 하므로 이것을 포함한 적색광은 따뜻하고 불의 빛도 붉은 색이다. 이러한 경험적 측면에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을 난색(暖色, warm color)이라고 하며 유채색의 노랑, 주황, 빨강 계열의 색을 이야기 한다. 또한 물의 색을 연상하는 파랑색 계열의 색은 찬 느낌을 주므로 한색(寒色, cool color)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순색계에서 일어난다.⁵⁸⁾ 이것이 1차 적인 한난색의 개념으로 단순히 빨간 색이라고 해서 따뜻한 느낌이 들며, 파란색이라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다.

2차적인 한난개념을 세분화하여 구분하면 따뜻한 색의 대표인 빨강, 주황, 노랑의 색에도 찬색과 따뜻한 색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잠재된 기초색(基調色 base color), 즉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베이스 색상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색의 빨강색에 노랑이나 주황을 가미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이지만 흰색이나 검정, 파랑을 가미하게 되면 차가운 빨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색상에 옐로우베이스와 블루베이스로 나누어 구분된다.⁵⁹⁾

56) 한국색채학회 3, 「색이 만드는 미래」, 서울; 국제출판사, 2002, p. 119.

57) 김민기 외 1인, 「colorist」, 서울; 시대고시기획, 2008, p. 8.

58) 최영훈 외 2인, 「색채의 원리와 활용」, 서울; 미진사, 2004, p. 64.

59) 신향선, 「color image making」, 서울; 도서출판 국제, 2003, p. 36

이러한 따뜻한(warm)톤 과 차가운(cool)톤은 피부색에도 존재한다. 피부색을 구별하는데 있어 일차적 요인으로는 색상, 명암, 채도에 따라 온도 개념이 적용되며 크게 황색을 띤 따뜻한 톤과 푸른색을 띤 차가운 톤으로 나눌 수 있다.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을 구분하는 기준은 빛을 반사하느냐, 흡수하느냐가 관건이고 빛을 반사하는 성격을 지녔을 경우가 따뜻한 톤 컬러, 빛을 흡수하는 색조가 차가운 톤이 된다.⁶⁰⁾

(1) 피부색 선행연구

퍼스널 컬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톤을 기준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과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박화순(2000)⁶¹⁾은 대학생들의 피부색을 따뜻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의 3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따뜻한 형의 피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복합형, 차가운 형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정(2005)⁶²⁾은 피부 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유형군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개인의 색채 진단결과를 통해 얻어진 피부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채는 이미지를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홍미숙(2005)⁶³⁾은 피부 톤을 warm-light, warm-medium, warm-dark, cool-light, cool-medium, cool-dark, warm&cool-medium, warm&cool-dark의 8가지로 분류하여 피부색에 따른 조화색과 부조화색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피부색과 유사한 톤과 명도가 높은 색채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명도가 낮은 색채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신향선(2002)⁶⁴⁾은 20대에서 50대의 성인여성 343명을 대상으로 퍼스널컬

60) 이해영(2004), op. cit., p. 24.

61) 박화순(2000), op. cit., pp. 49-63.

62) 김수정(2005), op. cit., pp. 38-57.

63) 홍미숙(2005), op. cit., pp. 35-80.

리에 따른 피부색을 연구한 결과 여름 유형 67.6%, 가을 유형이 21%, 겨울 유형이 11.1%를 차지해 여름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으로 나누어 볼 때 차가운 톤의 분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형여(2011)⁶⁵⁾는 분광측색기를 이용하여 피부 톤을 cool/mute dark, warm/dark, soft warm/dark, cool/light, soft warm/light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피부색 표준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피부 유형별 명칭과 분류수는 <표 7>과 같다.

<표 7> 피부 톤 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수	피부색 유형별 명칭	연구 결과
박화순(2000)	3	따뜻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	따뜻한 형이 가장 많이 나타남
김수정(2005)	4	봄 유형군, 여름 유형군, 가을 유형군, 겨울 유형군	퍼스널컬러에 따른 색채의 활용은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옴
홍미숙(2005)	8	warm-light, warm-medium, warm-dark, cool-light, cool-medium, cool-dark, warm&cool-midium, warm&cool-dark	피부색과 유사한 톤과 명도 높은 색채 긍정적 결과, 명도 낮은 색채는 부정적인 결과 도출
신향선(2002)	4	봄, 여름, 가을, 겨울	PCS진단프로그램에 따른 분포도 결과 여름>가을>겨울>봄 순의 유형으로 나타남
진형여(2011)	5	cool/mute dark, warm/dark, soft warm/dark, cool/light, soft warm/light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피부색 표준데이터를 제시

64) 신향선, 「퍼스널컬러 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57-73.

65) 진형여(2011), op. cit., pp. 60-96.

(2) 차가운 피부 톤

모든 색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듯이 인체의 색상 역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된다.

사계절 유형을 기준으로 찬 피부 톤을 분류하면 여름과 겨울타입에 해당된다. 우선 여름 타입의 피부 특징은 붉은 색소와 황색이 혼합된 로즈베이지나 핑크베이지계열을 띠며 자외선에 노출 되었을때 쉽게 붉어지지만 피부색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⁶⁶⁾

겨울 타입의 피부는 붉은기가 비치는 투명한 피부이거나 노란기(sallowhess)를 띠고 있으며 얼굴색의 밝기에 상관없이 얼굴에 공통적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것이 특징이다.⁶⁷⁾ 또한 창백하고 흰 피부의 페일 베이지계열과 핑크 빛이 도는 핑크베이지, 로즈베이지 계열이며 짙은 계열의 경우 회색이나 흑빛을 지닌 올리브 계열의 피부색을 지니고 있다.⁶⁸⁾

일반적으로 계절의 타입에 따른 차가운 피부색을 분류하는 경우 여름, 겨울의 피부 톤이 차가운 피부 톤에 속하며 피부의 명도의 차이는 한, 난색 구별 없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만 노란기가 없고 붉은기를 띠는 피부 톤을 공통적으로 차가운 피부 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뜻한 피부 톤

베이지 계열의 피부에 황색기미가 돌면 따뜻함을 느낀다. 즉, 따뜻한 피부는 오클 계, 크림 계를 의미⁶⁹⁾하며 계절 타입별로 피부색을 분류하면 봄과 가을 유형에 해당된다.

봄 타입의 피부색은 기본적으로 노르스름한 색을 지니고 있으며 피부가 맑

66) 신향선(2003), op. cit., p. 129.

67) 신수현,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 63.

68) 신향선(2003), op. cit., p. 133.

69) 박화순, 「찬 피부색에 대한 의복색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디자인학연구 15(4), 2002, p. 329.

고 투명한 아이보리 빛 베이지 색상을 띠는 피부색으로 볼 부분에 복숭아 빛의 붉은 혈색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가을에 비해 밝고 흰 피부에 속한다.⁷⁰⁾ 가을 타입의 피부색은 노르스름한 피부에 황색기미도 함께 지니고 있어 밝은 피부보다 중간 톤이나 어두운 톤의 피치베이지, 골든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골든브라운 계열로 황색이 가미된 피부색을 지니고 있다.⁷¹⁾

3) 퍼스널 컬러 진단의 발전

괴테(1749-1832)의 ‘모든 색에는 노랑과 파랑의 두 극 사이에 든다’의 이론을 기초로 한 Robert Dorr(1905-1980)는 인간의 색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사람의 피부에서는 두 가지 색의 기조(Tone) - 따뜻한 색과 찬색을 지니고 있다고 입증하였다.

그 후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이론을 기초로 독일의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 1888-1967)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색의 구성에 계절의 4가지 타입을 적용하면서 사계절 컬러 타입의 이론으로 색채를 구분하였으며⁷²⁾,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사람의 성격패턴 양식에는 쾌활한(봄), 냉담한(여름), 성급한(가을), 우울한(겨울) 등으로 나누어 계절별 색상을 성격분석에 활용하였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색채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색의 언더 톤(undertone)으로 이는 다색배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색을 고려한 배색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하여 색의 언더 톤은 전체에 푸른빛이 느껴지는 블루 베이스(blue-base), 노란빛이 느껴지는 옐로 베이스(yellow-base)로 나누었고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1940년 미국의 디자이너 수잔 케이질(Suzanne

70) 신향선(2002), op. cit., p. 127.

71) Ibid., p. 131.

72) 김수정(2005), op. cit., p. 24

Cayill)은 사람들의 헤어, 눈동자, 피부색에 따라 개인의 컬러 파렛트를 제작하여 개인색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⁷³⁾

이후 게이리 피크니(G. Pickney)가 제안한 개인색채를 사계절에 대응시키는 방법과 같이 서양에서 주로 활용하는 개인색채 시스템으로는 피부색을 블루 베이스와 옐로우 베이스로 구분하여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으로 나누고,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의 대비 정도를 고려하여 4계절에 대응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⁷⁴⁾

이 후, 캐롤 잭슨의 저서 ‘Color me beautiful’(1980)이 출간되어 인간의 이미지를 계절별로 분류하고 어울리는 의상과 화장법을 제안하여 이 저서를 기초로 사람의 피부 바탕색과 색이 가지고 있는 계절별 특성이 결합하여 이미지 연출에 중요한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⁷⁵⁾

3. 색채에 따른 이미지 상승효과

얼굴 각 부위의 다양한 색조 메이크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색조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가 다양하게 형성됨으로 색채의 감정효과와 톤에 따른 메이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73) 한상윤, 「60세 이상 여성의 피부색과 퍼스널컬러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p. 8.

74) 김영인 외3인, 「개인의 색채이미지 유형에 의한 국내 색조화장품의 스토리 개발과 색채 계획」, 복식 55(6), 2005, pp. 1-14.

75) Suzzy Chiazzari, 진현중 역 「Color」, 서울; 전원문화사, pp. 27-29.

1) 색채 감정효과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분류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은 눈을 통해 지각되는 생리적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감정도 다양하다.⁷⁶⁾ 일반적으로 색채의 감정 분류는 <표 8>과 같이 온도감(溫度感), 진출(進出)과 후퇴(後退), 중량감(重量感), 경연감(硬鉛感)으로 나눌 수 있다.

온도감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의 분류는 난색과 한색으로 나누어진다. 난색은 주로 따뜻하게 보이는 색으로 장파장 계열의 붉은색인 레드, 레드 퍼플, 오렌지, 옐로우 계열의 색을 말하며 한색은 단파장 계열의 색인 블루, 블루 그린, 퍼플 블루 계열을 말한다.⁷⁷⁾ 색조 메이크업에 있어서 난색은 풍부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주된 색상으로는 레드, 오렌지, 골드, 레드 퍼플 등이 있다. 한색이 갖는 이미지는 깔끔하며, 날카로우며 주된 색상으로는 실버, 블루, 퍼플 블루, 블루 그린 등이 있다.

진출과 후퇴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에 있어서 진출과 후퇴의 표현은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과 어두운색의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얼굴의 윤곽을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섀도우 표현에 있어서도 눈매의 깊이감을 연출하는데 큰 영향을 차지한다.⁷⁸⁾

중량감은 색채에서 색의 밝기와 어두움에 따라 무거움과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⁷⁹⁾ 중량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명도로써 고명도의 색은 가벼운 느낌을 주고, 저명도의 색은 무거운 느낌을 준다. 색조 메이크업에서의 중량감 역시 명도의 차이가 크며, 밝고 환한 톤은 가벼운 느낌을, 어둡고 탁한 톤은 무거

76) 이윤주, 「복식에 있어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30.

77) 김민기 외 1인(2008), op. cit., p.42.

78) 배은정, 「색채이미지와 색조화장의 상관관계 연구」,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57.

79) 이정미, 「한국여성의 메이크업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2, p.18.

운 느낌을 준다.

경연감은 채도와 명도의 복합적인 영향을 함께 받아 나타나게 된다. 중명도 이하로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한색계통이 딱딱한 느낌을 주며 색조로는 스트롱 톤, 딥 톤, 다크 톤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으며 난색계통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그에 해당되는 색조는 페일 톤, 라이트 톤, 덜 톤, 그레이쉬 톤 등이 있다.⁸⁰⁾

<표 8> 색채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분류

분류	구분	색조 메이크업	
온도감	난색		
	한색		
진출·후퇴	윤곽수정		
중량감	무거움		
	가벼움		
경연감	부드러움		
	딱딱함		

80) 김주경 외 4인, 「color story」, 경기; 교문사, 2010, p. 19.

2) 톤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분류

톤은 명도와 채도의 복합적인 색조의 의미로 유사한 명도와 채도로 색을 그룹화하여 분류하며 색의 성질에 따라 감성적 이미지를 구분한다.⁸¹⁾

메이크업에서의 톤도 <표 9>와 같이 이와 동일하게 색상이 다르더라도 톤에 의해 중명도와 고채도의 톤 그룹은 적극적인,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명도와 저채도의 톤 그룹은 어두운, 침착한, 보수적인 이미지 등을 표현할 수 있다.

톤에 의한 이미지 표현을 위하여 대표적인 톤 시스템인 일본의 PCCS를 기준으로 화려한 톤, 밝은 톤, 안정적인 톤, 어두운 톤으로 분류하였다.

화려한 톤은 비비드 톤과 스트롱 톤으로 나누며 이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은 적극적이며 강한 이미지를 주며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밝은 색조에는 화려한 톤과 상반되는 색채를 사용하며 브라이트 톤, 라이트 톤, 페일 톤이 해당된다. 색조 메이크업의 이미지는 명량하며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이다.

안정적인 톤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에는 소프트 톤, 라이트 그레이쉬 톤, 그레이쉬 톤, 덜 톤이 해당되며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을 나타냄과 동시에 색조가 낮아질수록 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

어두운 톤에는 딥 톤과 다크 톤, 다크 그레이쉬 톤이 해당되며 강한, 깊은, 어두운 이미지가 느껴지는 색조이다. 남성적인 색조의 느낌이 강하지만 색조 메이크업 적용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⁸²⁾

81) 김주경 외 4인 (2010), op. cit., p. 55.

82) 배은정(2010), op. cit., p. 60.

<표 9> 톤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분류

분류	구분	색조 메이크업	
화려한 톤	vivid		
	strong		
밝은 톤	light		
	pale		
안정적인 톤	soft		
	grayish		
어두운 톤	deep		
	dark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 조사대상

색채, 웨딩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에 관한 선호도 조사는 결혼 적령기의 여성과 미래에 결혼을 할 여성들의 선호도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만 19세에서 만 35세 미만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거주지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있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구성은 25세 미만이 35.2%, 25-30세 미만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5 미만이 28.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21.6%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 21.0%, 서비스 종사자가 17.6%, 기타 직업이 15.5%, 판매 종사자가 13.4%, 전문가가 10.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자가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자가 30.7%,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0>과 같다.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사항 문항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N	(%)
연령	25세 미만	116	35.2
	25-30세 미만	119	36.1
	30-35세 미만	94	28.6
직업	학생	69	21.0
	전문가	36	10.9
	사무직 종사자	71	21.6
	판매 종사자	44	13.4
	서비스 종사자	58	17.6
	기타	51	15.5
최종학력	고졸	101	30.7
	대학 재학중	34	10.3
	대졸 이상	194	59.0
합계		329	100.0

2) 자료수집

본 조사를 위한 대상자는 서울·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5세 미만이며, 조사는 2011년 4월 21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60부를 배부하여 337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한 설문지 총 32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이해영(2004)⁸³⁾, 유정희(2008)⁸⁴⁾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성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3문항, 메이크업에 관한 8문항, 웨딩 메이크업과 그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10문항, 퍼스널 컬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실험은 실험자를 ‘이미지 선호도’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으로 변화시킨 얼굴 사진의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로 이루어졌다. 얼굴 이미지 변화에 객관성을 두고자 관련분야의 전문인으로 한 평가단 메이크업 아티스트, 색채 전문가, 의류학 박사, 메이크업학 석사로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11> 설문지 문항 분류

No.	측정 변수	설문지 내용	문항수 (총 25문항)	측정 형태
I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령, 학력, 직업	3	선다형 응답자 기입
II	웨딩 메이크업 · 이미지메이킹	선호하는 웨딩이미지, 웨딩 메이크업시 고려 사항, 이미지 변화의 필요성	10	선다형 응답자 기입
III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인지도, 필요성	4	선다형 응답자 기입

83) 이해영(2004), op. cit., p. 28.

84) 유정희, 「여성들의 웨딩 코디네이션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83-97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그리고 퍼스널 컬러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4. 실험 자극물 제작

1) 측정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한 실험자선정은 육안측정과 함께 분광 측색계 Minolta CM-2600d를 이용하여 피부색 4부위, 모발색 1부위를 직접 측정한 후 그 결과에서 얻어진 데이터 값을 평균화하여 선행논문 진형여(2011)⁸⁵의 피부색에 대한 유형별 진단 결과 5가지 유형 중 cool/light의 유형에 속하는 차가운 피부 톤의 실험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따뜻한 피부의 실험자는 soft warm/light의 유형에 속하는 실험자의 선정하여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결혼적령기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대상자 2명 모두 염색이나 탈색을 한 경험이 없고, 최근 피부 질환이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로이드계통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정확한 색채 진단을 위해 측정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고 피부 본래의 상태를 측정하였다.

실험 의복 상의는 상체를 덮도록 하여 머리와 의상 색을 흰색 천으로 가리고 측정하였으며 실험자는 명도 N9 수치의 회색판 배경에서 30cm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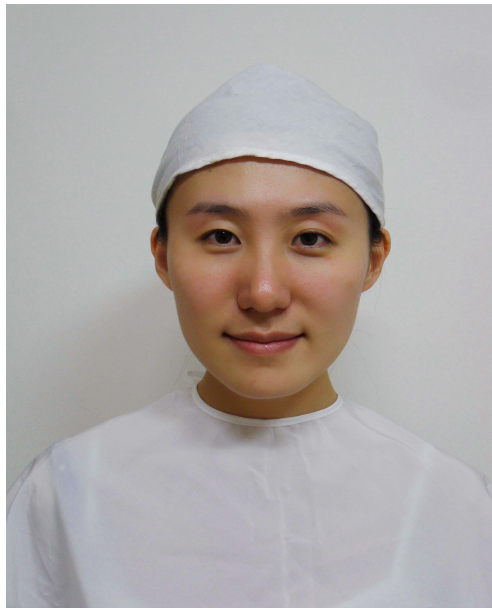
85) 진형여(2011), op. cit., p. 73.

진 지점에 서게 하고, 실험자로부터 약 60cm 떨어진 곳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2) 찬 피부 톤의 실험자와 따뜻한 피부 톤의 실험자 선정

(1) 차가운 피부 톤에 따른 유형 선별 비교

분광 측색계를 이용한 개인색채진단에 앞서 <그림 1>의 실험자의 신체적 특징을 1차적으로 육안 측정한 결과 피부색은 차가운 색으로 여름 유형(light, cool, soft)에 속하며 붉은 혈색의 베이지 계열을 띄고 있었다. 모발색은 흑갈색을 띄는 윤기 나는 검은색을 띄고 있으며, 눈동자색은 선명한 검은색에 다크 브라운 색을 띄고 있어 육안 측정에 의해 차가운 피부 톤을 가진 사람으로 진단하였다.



<그림 1> 찬 피부 톤의 실험자

2차 진단으로 Minolta CM-2300d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피부색을 분석하였으며 <표 12>와 같이 데이터 평균값과 측색실험을 데이터화하여 실험자의 개인색채 요소를 정리하였다.

<표 12>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차가운 피부 톤의 측정값

항목	측색점	L*	a*	b*
피부색	이마	59.68	11.09	16.97
	볼	66.14	10.45	16.19
	턱	61.59	13.46	17.65
	팔 안쪽	66.61	7.34	16.48
머리카락색	머리카락	16.84	0.96	1.05

찬 피부 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피부색의 L*은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암의 수치로써 이마의 L*의 측정값은 59.68이고, 볼의 L*의 측정값은 66.14이며, 턱의 L*의 측정값은 61.59로 타나났고, 팔 안쪽의 L*의 측정값은 66.61로 자외선에 가장 노출이 덜한 팔 안쪽의 색상이 가장 밝게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색의 L*의 측정값은 16.84로 명암의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색의 a*는 녹색과 빨강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써, 수치가 높을수록 빨강에 가깝다. 이마의 a*의 측정값은 11.09이고, 볼의 a*의 측정값은 10.45이며, 턱 a*의 측정값은 13.46으로 타나났고, 팔 안쪽의 a* 측정값은 7.34로 측정되었다. 자외선의 노출이 적은 팔 안쪽의 측정값이 다소 낮게 나왔으며, 자외선에 많은 양이 노출된 다른 신체의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붉은 기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머리카락의 a*의 측정값은

0.96로 나타났다.

피부색의 b^* 는 노랑과 파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써 수치가 높게 나올수록 노랑에 가깝다. 이마의 b^* 의 측정값은 16.97로 나왔으며, 볼의 b^* 측정값은 16.19이고, 턱의 b^* 의 측정값은 17.65로 측정되었으며, 팔 안쪽의 b^* 측정값은 16.48로 측정되었다. 머리카락의 b^* 측정값은 1.05로 노랑의 수치가 약간 나타난 흑갈색의 검은 색상의 머리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광 측색계를 이용한 차가운 피부 톤의 L^* , a^* , b^* 의 데이터 평균값은 $L^*63.50$, $a^*10.59$, $b^*16.82$ 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험자는 진형여(2011)⁸⁶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5개의 군집 유형으로 나눈 피부색의 분류 결과의 cool/light유형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험자의 피부색을 차가운 피부 톤으로 분류하였다.

(2) 따뜻한 피부 톤에 따른 유형 선별 비교

개인 색채 진단에 앞서 <그림 2>의 실험자의 신체적 특징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피부색은 따뜻한 색으로 가을 유형(soft, warm, deep)에 속하며, 노르스름한 혈색이 거의 없는 피부색을 지니고 있었다. 모발색은 윤기가 없는 암갈색 계열의 색상을 띠고 있었으며 눈동자 색을 살펴본 결과 황갈색을 띠고 있어 육안 측정에 의해 따뜻한 피부 톤을 가진 사람으로 진단하였다.

86) 진형여(2011), op. cit., p. 73.



<그림 2> 따뜻한 피부 톤의 실험자

2차 진단으로 Minolta CM-2300d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피부색을 분석하였으며 <표 13>과 같이 데이터 평균값과 측색실험을 데이터화하여 실험자의 개인색채 요소를 정리하였다.

<표 13>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따뜻한 피부 톤의 측정값

항목	측색점	L*	a*	b*
피부색	이마	62.99	10.39	18.57
	볼	68.59	7.59	18.72
	턱	63.87	12.27	18.99
	팔 안쪽	68.61	6.33	14.09
머리카락색	머리카락	16.50	0.88	1.04

따뜻한 피부 톤의 측정 부위에 따른 색의 측정값 L^* , a^* , b^* 값을 알아보면 먼저 피부색의 L^* 은 이마의 L^* 의 측정값이 62.99이고, 볼의 L^* 의 측정값은 68.59이며, 턱의 L^* 의 측정값은 63.87로 나타났고, 팔 안쪽의 L^* 의 측정값은 68.61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색의 L^* 의 측정값은 16.50으로 나타났으며, 찬 피부 톤의 실험자 머리카락 색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따뜻한 피부 톤의 실험자의 머리카락이 윤기가 덜한 건조한 모발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피부색 측정에 따른 측정값 a^* 를 살펴보면 이마의 a^* 의 측정값은 10.39이고, 볼의 a^* 의 측정값은 7.59이며, 턱 a^* 의 측정값은 11.27으로 나타났고, 팔 안쪽의 a^* 측정값은 5.33로 측정되었다. 따뜻한 피부 톤 역시 자외선의 노출이 적은 팔 안쪽의 측정값이 다소 낮게 나왔으나 붉은 기가 많은 찬 피부 톤의 실험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마, 볼, 턱 부분의 측정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적색도의 측정값이 낮게 나와 찬 피부 톤의 실험자보다는 붉은 기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머리카락의 a^* 의 측정값은 0.96으로 나타났으며 찬 피부 톤의 실험자와 큰 차이는 없었다.

피부색의 황색도 b^* 는 이마의 b^* 의 측정값은 18.57로 나왔으며, 볼의 b^* 측정값은 18.72이고, 턱의 b^* 의 측정값은 18.88로 측정되었으며, 팔 안쪽의 b^* 측정값은 14.09로 측정되었다. 찬 피부 톤의 실험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황색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의 b^* 측정값은 1.04로 찬 피부 톤의 실험자와 유사한 노란 수치가 약간 높게 나타난 암갈색의 검은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분광 측색계를 이용한 따뜻한 피부 톤의 L^* , a^* , b^* 의 데이터 평균값은 $L^*66.01$, $a^*9.14$, $b^*17.59$ 와 같다.

앞서 실험한 차가운 톤의 피부와 따뜻한 톤의 피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차가운 피부 톤의 실험자는 따뜻한 피부 톤의 실험자보다 L*값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였다.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피부색상의 밝기에 따라 소프트와 하드의 이미지로 나누어지지만 퍼스널 컬러의 온도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의 값이 차가운 피부 톤에서 더 높게 나타나 차가운 피부 톤이 따뜻한 피부 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붉은 기미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값을 살펴보면 따뜻한 피부 톤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차가운 피부 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노란기가 많이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피부 톤 모두 자외선의 노출이 적은 팔 안쪽의 측색 결과 a*와 b*의 값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자외선의 영향에 따라 본인이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색조의 양이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체는 헤모글로빈의 적색, 카로틴의 황색, 멜라닌의 갈색에 의한 개인색채를 띠는다고 하였다. 그 색조들이 과립을 합성하여 표피세포에 공급하므로 피부색을 결정하며, 그 색채는 자외선 자극 등에 의해⁸⁷⁾ 후천적으로 피부색의 채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험자는 진형여(2011)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5개의 군집 유형으로 나눈 피부색의 분류 결과의 soft/warm유형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 결과를 얻어 따뜻한 피부 톤이라는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87) 이훈 외 1인, 「한국인 태아의 피부색소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지, 6(4), 1981, p. 451.

IV. 결과 및 고찰

1. 웨딩 메이크업 선호도 조사 결과

1) 웨딩 메이크업 및 이미지 선호도

웨딩 메이크업과 이미지 각각의 선호도 조사와 그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과 이미지 간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웨딩 메이크업 시 피부메이크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피부 색상

메이크업 시 선호하는 피부	N	(%)
아주 밝게	21	6.4
피부 톤 보다 밝게	139	42.2
피부 톤에 딱 맞게	167	50.8
피부 톤 보다 어둡게	2	0.6
합계	329	100.0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딩 메이크업 시 피부메이크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피부 색상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 톤에 딱 맞는 베이스 색채를 선호하는 경우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 톤보다 밝게 선호하는 경우가 42.2%, 아주 밝게 선호하는 경우가 6.4%, 조금 어둡게 선호하는 경우가 0.6%로 순으로 나타났다. 조민희(2007)⁸⁸⁾의 선행연구에서는 본인

88) 조민희, 「웨딩코디네이션의 선호도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58-59.

의 피부 톤보다 밝은 베이스 색채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현재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의 피부 톤에 관한 선호도가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미혼 여성들은 과하지 않은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색조 메이크업을 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5>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피부와 눈 메이크업 질감

구분 질감	선호하는 질감	N	(%)
피부	매트(보송보송하게)	82	24.9
	쉬머(은은하게 반짝이게)	198	60.2
	글로시(oily한 윤기가 나게)	49	14.9
눈	매트(보송보송하게)	32	9.7
	쉬머(은은하게 반짝이게)	280	85.1
	글로시(oily한 윤기가 나게)	17	5.2
합계		329	100.0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딩 메이크업 시 피부메이크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피부 질감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쉬머(은은하게 반짝이게)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트(보송보송하게)가 24.9%, 글로시(oily한 윤기가 나게)가 14.9%로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 메이크업 시 선호하는 아이섀도우의 질감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쉬머(은은하게 반짝이게)가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트가 9.7%, 글

리터(입자가 큰 펄)가 5.2%로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메이크업의 질감에 이어 색조 메이크업의 질감 역시 은은하게 반짝이는 쉬머한 질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30대 미혼의 여성들은 광이 나는 피부 표현과 입자가 크지 않은 은은한 펄의 반짝이는 질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6>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웨딩 메이크업 중요 요소	N	(%)
피부표현	59	17.9
아이섀도우	17	5.2
립스틱	8	2.4
볼터치	1	.3
속눈썹	11	3.3
아이라이너	19	5.8
전체적인 이미지	214	65.0
합계	329	100.0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표현이 17.9%, 아이라이너가 5.8%, 아이섀도우가 5.2%, 속눈썹이 3.3%, 립스틱이 2.4%, 볼터치가 0.3%로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포인트 메이크업보다 전체적인 자신의 이미지에 관한 자각성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17> 웨딩 메이크업 시 이미지 변화가 큰 수정메이크업

수정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변화	N	(%)
눈 메이크업	190	57.8
피부메이크업	62	18.8
볼 메이크업	5	1.5
얼굴 윤곽 메이크업	64	19.5
입술 메이크업	8	2.4
합계	329	100.0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딩 메이크업 시 이미지를 가장 많이 변화시켜주는 수정메이크업에 대해 눈 메이크업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얼굴 윤곽 메이크업이 19.5%, 피부메이크업이 18.8%, 입술 메이크업이 2.4%, 볼 메이크업이 1.5%로 순으로 나타났다. 눈 메이크업은 다른 색조 메이크업에 비해 다양한 색감과 위치나 크기의 수정으로 인하여 이미지의 큰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18>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선호하는 웨딩 이미지	N	(%)
퓨어이미지(Pure image)	64	19.5
로맨틱이미지(Romantic image)	141	42.9
클래식이미지(Classic image)	40	12.2
노블이미지(Noble image)	38	11.6
피스풀이미지(Peaceful image)	46	14.0
합계	329	100.0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딩 메이크업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면 로맨틱이미지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퓨어이미지가 19.5%, 피스풀이미지가 14.0%, 클래식이미지가 12.2%, 노블이미지가 11.6%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서 웨딩 메이크업 및 이미지의 선호도 결과를 종합해보면 웨딩 메이크업은 결혼식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자신의 이미지의 상승을 위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퍼스널 컬러 선호도 조사 결과

<표 19> 퍼스널 컬러 관련 문항

문항 \ 사항	퍼스널 컬러 사항	N	(%)
퍼스널 컬러 시스템 유무	그렇다	83	25.2
	아니다	246	74.8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조 유무	그렇다	179	54.4
	아니다	150	45.6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의 일치 유무	그렇다	197	59.9
	아니다	132	40.1
신부메이크업을 받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	그렇다	305	92.7
	아니다	24	7.3
합계		329	100.0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퍼스널 컬러 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퍼스널 컬러 시스템 유무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4.8%,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2%로 나타났으며, 추후 웨딩 메이크업을 받을 시 퍼스널 컬러에 따른 메이크업을 받고 싶냐는 질문에는 원한다는 응답이 92.7%로 높게 나온 결과로 보아 일반인들의 퍼스널 컬러에 대한 중요성과 선호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조 유무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으며,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의 일치 유무는 그렇다는 응답이 59.9%, 아니다는 응답이 40.1%로 나타났다.

3) 문항별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차이

<표 20> 연령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

연령 \ 이미지	퓨어이미지	로맨틱이미지	클래식이미지	노블이미지	피스풀이미지	전체
25세 미만	28	53	13	7	15	116
	24.1%	45.7%	11.2%	6.0%	12.9%	100.0%
25-30세 미만	25	55	11	14	14	119
	21.0%	46.2%	9.2%	11.8%	11.8%	100.0%
30-35세 미만	11	33	16	17	17	94
	11.7%	35.1%	17.0%	18.1%	18.1%	100.0%
전체	64	141	40	38	46	329
	19.5%	42.9%	12.2%	11.6%	14.0%	100.0%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로맨틱이미지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퓨어이미지가 19.5%, 피스풀이미지가 14.0%, 클래식이미지가 12.2%, 노블이미지가 11.6%로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25세 미만, 25세-30세미만인 경우 로맨틱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세-35세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이미지 선호도가 평이하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메이크업에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이미지를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연령대가 낮은 타 설문자들에 비해 다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21> 직업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

연령 \ 이미지	퓨어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노블 이미지	피스플 이미지	전체
학생	15	33	9	4	8	69
	21.7%	47.8%	13.0%	5.8%	11.6%	100.0%
전문가	8	15	1	8	4	36
	22.2%	41.7%	2.8%	22.2%	11.1%	100.0%
사무직 종사자	10	31	8	8	14	71
	14.1%	43.7%	11.3%	11.3%	19.7%	100.0%
판매 종사자	10	17	10	4	3	44
	22.7%	38.6%	22.7%	9.1%	6.8%	100.0%
서비스 종사자	9	25	5	8	11	58
	15.5%	43.1%	8.6%	13.8%	19.0%	100.0%
기타	12	20	7	6	6	51
	23.5%	39.2%	13.7%	11.8%	11.8%	100.0%
전체	64	141	40	38	46	329
	19.5%	42.9%	12.2%	11.6%	14.0%	100.0%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로맨틱이미지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퓨어이미지가 19.5%, 피스플이미지가 14.0%, 클래식이미지가 12.2%, 노블이미지가 11.6%로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 살펴보면 학생인 경우 로맨틱이미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4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직업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 직업인 경우는 퓨어이미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23.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직

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2> 최종학력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

최종학력 \ 이미지	퓨어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노블 이미지	피스풀 이미지	전체
고졸	16	33	16	19	17	101
	15.8%	32.7%	15.8%	18.8%	16.8%	100.0%
대학 재학중	7	17	4	2	4	34
	20.6%	50.0%	11.8%	5.9%	11.8%	100.0%
대졸 이상	41	91	20	17	25	194
	21.1%	46.9%	10.3%	8.8%	12.9%	100.0%
전체	64	141	40	38	46	329
	19.5%	42.9%	12.2%	11.6%	14.0%	100.0%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로맨틱이미지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퓨어이미지가 19.5%, 피스풀이미지가 14.0%, 클래식이미지가 12.2%, 노블이미지가 11.6%로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로맨틱이미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5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학력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자는 퓨어이미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21.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학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이미지 선호도와 퍼스널컬러 진단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색채 제안

만 19세에서 만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들에게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조사 한 후, 설문에서 얻어진 로맨틱한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을 퍼스널컬러 진단에 따른 차가운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와 따뜻한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에게 시연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색상칩의 색을 H(hue), V(value), C(chroma)의 먼셀 단위로 기입하여 색상의 데이터를 함께 나타내었다.

1) 차가운 피부 톤

(1) 차가운 톤에 따른 로맨틱한 웨딩 메이크업 색채 제안

차가운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의 경우, 분광 측색기로 통해 HVC 값을 측정 한 결과 L*, a*, b*의 평균값은 L* 63.50, a* 10.59, b* 16.82으로 진형여(2011)의 선행연구의 cool/light유형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따뜻한 피부 톤보다 얼굴에 붉은 기가 강한 자색인 반면, 노란 색조인 황색은 낮다는 데이터의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찬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가 블루 언더베이스(blue under base)로 차갑고 불그스름한 톤으로 핑크계열, 로즈 베이지 계열로 선명하기 보다는 부드러운 중간 색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⁹⁾












때문에 차가운 피부의 로맨틱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옐로우 계열의 베이스 색상을 이용하여 피부메이크업을 하며, 적색도가 낮으며 채도가 낮은

89) 이해영(2004), op. cit., p. 25.

페일한 톤의 푸른 계열의 라벤더 색상을 이용한 색조 메이크업이 이미지 상승에 유용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표 23>과 같이 작업지시서로 계획하여 <그림 3>의 찬 피부 톤의 로맨틱 이미지 메이크업으로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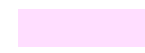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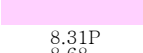

<표 23> 차가운 피부의 로맨틱한 이미지 적용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p style="text-align: center;">base</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6.25Y 8.81 7.51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4.11Y 8.56 7.34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eye</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5.91P 8.18 7.14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6.67P 8.80 4.43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5.54P 7.09 12.63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9.91PB 1.06 11.61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blush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8.31P 8.55 6.76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6.40P 8.61 4.72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lip</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1.09YR 8.89 2.62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0.53RP 8.34 6.59 </div> </div>
<p>퍼스널컬러</p>	<p>로지 베이지 계열의 블루 언더베이스</p>
<p>표현 재료</p>	<p>필 베이스, 파운데이션, 루스 파우더, 케익 새도우, 젤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립스틱, 블러셔, 마스크라, 립 글로즈</p>
<p>작업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이트 계열의 필 베이스와 옐로우 계열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루스 파우더로 피부 톤을 정리한다. ② 페일하고 그레이쉬한 색조의 푸른 빛을 띠는 퍼플계열의 아이 새도우로 아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뒤, 포인트 색상으로는 덜 톤, 다크 톤의 퍼플 색상으로 사용 한다. ③ 푸른 빛의 퍼플 또는 핑크 색상으로 볼 메이크업을 한다. ④ 페일한 톤의 베이지기미가 들어간 핑크색상의 입술로 연출한다.



<그림 3> 찬 피부 톤의 로맨틱 웨딩 메이크업

<표 24> 색채 제안

얼굴	차가운 피부 톤		따뜻한 피부 톤	
	피부 톤	피부 톤	피부 톤	피부 톤
skin	 6.25Y 8.81 7.51	 4.11Y 8.56 7.34	 5.57Y 8.92 5.50	 5.46Y 9.04 4.57
eye	 6.67P 8.80 4.43	 5.19P 8.18 7.14	 7.44P 8.02 9.16	 8.56P 8.99 4.24
	 5.54P 7.09 12.63	 9.91PB 1.06 11.61	 7.03P 7.06 11.47	 3.97P 1.07 9.69
cheek	 8.31P 8.55 6.76	 6.40P 8.61 4.72	 8.36P 8.78 5.46	 0.47Y 8.84 3.82
lip	 1.09YR 8.89 2.62	 0.53RP 8.34 6.59	 8.31P 8.68 6.07	 9.74P 8.36 6.88

찬 피부색은 자색을 띠는 불그스름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붉은 색조를 가려 메이크업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이트 계열의 펄 베이스를 사용하여 피부 톤을 정리하는 언더 메이크업을 거친 후, <표 24>에서 제안한 색상칩을 참고하여 붉은 기를 덮어줄 수 있는 노란색조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의 색상 한번 더 가려주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계열의 파우더를 사용하여 로맨틱한 이미지에 맞게 붉은 자색의 기미가 보이지 않도록 환하고 밝게 표현한다.

로맨틱한 이미지의 눈 메이크업은 페일 또는 그레이쉬의 색조를 활용해 메이크업하여 신비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야 하므로 찬 피부 톤에는 푸른 색상이 띠는 퍼플과 핑크색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아이 홀에

열게 발라준다. 그 후 로맨틱한 이미지에 맞는 큰 눈을 만들기 위해 덜 (dull)톤과 다크(dark)톤의 퍼플(purple) 색상을 이용하여 아이 홀 끝 부분과 눈 꼬리 부분에 포인트 색상을 넣어 준다.

로맨틱한 이미지의 볼 메이크업은 붉은 산호 빛 계열보다는 푸른빛의 핑크나 피치계열의 색상 연출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한 색상에 맞게 붉은 피부에는 푸른 색상의 퍼플, 또는 노란기가 가미된 베이지계열의 누드핑크 색상을 사용한다.

입술 메이크업은 볼 메이크업 색상과 유사한 계열로 사용하여 얼굴에 전체적인 조화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차가운 피부 톤을 가진 사람의 입술색상 역시 피부색상과 유사한 약간 어두운 빛의 자색을 띠고 있는 편이어서 입술 전용 컨실러로 본래의 입술 색을 가린 후 입술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색상을 표현한다. 로맨틱한 이미지의 입술색은 볼 메이크업 색조와 유사한 톤인 페일하며 누드한 톤을 사용하여 바르며, 차가운 피부에는 퍼플계열의 핑크보다는 밝은 피치계열의 색상과 베이지 기미가 들어간 누드 계열의 핑크 색상의 립스틱을 함께 섞어 바른다.

(2) 차가운 피부 톤의 상반된 색채 메이크업 연출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가운 피부 톤에게 상반된 색채를 사용한 결과 채도가 높은 붉은보라 색상으로 인하여 눈은 다소 부어 보이며 피부 색을 더욱 붉어보이게 한다.

또한 핑크계열의 베이스 색상을 사용함으로 인해 노란계열의 베이스 색채 사용 보다는 피부 톤이 밝아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피부 톤과 맞지 않는 하얗게 뜬 느낌을 준다.

불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여 얼굴이 더욱 붉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입술 메이크업의 경우는 혈색이 거의 없는 따뜻한 피부의 입술에서 핑크 색상의 발색이 화사하게 되는 반면 기존 어두운 자색 빛을 지니고 있는 찬 피부에는 기존입술색의 영향으로 인해 더 붉어 보이고 푸른 느낌의 핑크색상이 되버려 탁한 느낌이 든다.



<그림 4> 차가운 피부 톤의 상반된 색채 연출

2) 따뜻한 피부 톤

(1) 따뜻한 톤에 따른 로맨틱한 웨딩 메이크업 색채 제안

따뜻한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의 경우 역시 분광 측색기로 통해 HVC 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차가운 피부 톤과 비교해 볼 때 황색도(b^* 값)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적색도(a^* 값)는 낮게 나타났다. 피부색의 평균값은 L^* 는 66.01, a^* 는 9.14, b^* 는 17.59으로 soft/warm유형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 결과를 얻었다.

그것은 곧 따뜻한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가 옐로우 언더베이스(yellow under base)를 가지고 있으며, 피부색이 자외선에 노출되어 그을리게 되면 갈색 빛을 띠는 황색 톤으로 차분하며, 깊이감이 있는 색상이 보여 지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따뜻한 피부의 로맨틱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핑크계열의 베이스 색상으로 피부메이크업을 하고 색조 메이크업으로는 로맨틱 이미지에 맞게 폐일한 푸른 색상을 쓰되 적색도와 채도가 높은 라벤더 색상을 이용한 색조 메이크업이 이미지 상승에 유용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표 25>와 같이 작업지시서로 계획하여 <그림 5>의 따뜻한 피부 톤의 로맨틱 이미지 메이크업으로 완성하였다.

<표 25> 따뜻한 피부의 로맨틱한 이미지 적용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p>base</p> <table border="0"> <tr> <td style="background-color: #f9c99b; width: 30px; height: 1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f9c99b; width: 30px; height: 15px;"></td> </tr> <tr> <td>5.57Y 8.92 5.50</td> <td>5.46Y 9.04 4.57</td> </tr> </table> <p>eye</p> <table border="0">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99cc; width: 30px; height: 1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e699cc; width: 30px; height: 15px;"></td> </tr> <tr> <td>8.56P 8.99 4.24</td> <td>7.44P 8.02 9.16</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9933cc; width: 30px; height: 1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330066; width: 30px; height: 15px;"></td> </tr> <tr> <td>7.03P 7.06 11.47</td> <td>3.97P 1.07 9.69</td> </tr> </table> <p>blusher</p> <table border="0">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99cc; width: 30px; height: 1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f9c99b; width: 30px; height: 15px;"></td> </tr> <tr> <td>8.36P 8.78 3.82</td> <td>0.47Y 8.84 5.46</td> </tr> </table> <p>lip</p> <table border="0">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99cc; width: 30px; height: 1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e699cc; width: 30px; height: 15px;"></td> </tr> <tr> <td>9.74P 8.36 6.88</td> <td>8.31P 8.68 6.07</td> </tr> </table>			5.57Y 8.92 5.50	5.46Y 9.04 4.57			8.56P 8.99 4.24	7.44P 8.02 9.16			7.03P 7.06 11.47	3.97P 1.07 9.69			8.36P 8.78 3.82	0.47Y 8.84 5.46			9.74P 8.36 6.88	8.31P 8.68 6.07
5.57Y 8.92 5.50	5.46Y 9.04 4.57																				
8.56P 8.99 4.24	7.44P 8.02 9.16																				
7.03P 7.06 11.47	3.97P 1.07 9.69																				
8.36P 8.78 3.82	0.47Y 8.84 5.46																				
9.74P 8.36 6.88	8.31P 8.68 6.07																				
<p>퍼스널 컬러</p>	<p>혈색이 없는 노르스름한 색조의 옐로우 언더 베이스</p>																				
<p>표현 재료</p>	<p>펄 베이스, 파운데이션, 루스 파우더, 케익 새도우, 젤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립스틱, 블러셔, 마스크라, 립 글로즈</p>																				
<p>작업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핑크 계열의 펄 베이스 와 핑크색상의 코렉터를 이용하여 얼굴톤을 정리한 후 핑크색상이 가미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톤을 마무리한다. ② 페일하며 그레이쉬한 탁한 톤의 색조를 선택하며 차가운 피부 톤에 사용하는 색상보다는 다소 붉은 기미가 있는 퍼플계열의 색상을 사용한다. 포인트색상으로는 다크한 색조의 붉은보라색상을 사용한다. ③ 퍼플계열의 핑크와 브라이트한 색조의 피치 색상으로 볼 메이크업을 한다. ④ 채도가 낮으며 명도가 높은 핑크색상으로 입술메이크업을 마무리한다. 																				



<그림 5> 따뜻한 피부 톤의 로맨틱 웨딩 메이크업

따뜻한 피부색은 노란색상을 띠고 있어 자칫 혈색이 건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얼굴색상을 밝고 환하게 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핑크 계열의 펄 베이스를 이용하여 얼굴에 쉬머한 질감의 피부 표현을 한뒤 핑크색상의 코렉터를 이용하여 눈 밑 그림자와 팔자주름 턱 부위 등 돌출되어 보이고 싶은 부위에 사용하여 노란기미를 없애줌과 동시에 볼륨감 있는 이목구비를 완성한다. 그 후 핑크색상이 가미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에 남아있는 노란기미를 감소시켜준다. 마지막으로 라벤더 색상의 파우더를 이용하여 옐로우 계열의 피부 톤을 화사하게 정돈한다.

따뜻한 피부 톤 역시 로맨틱한 이미지의 눈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페일하며 그레이쉬한 톤의 색조 메이크업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차가운 피부 톤과 동일하게 퍼플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되 붉은 핑크 색상이 가미된 퍼플계열을 사용해 주어 노란 피부에 화사한 혈색을 더해준다. 그 후 덜 톤과 다크 톤의 붉은 보라색상을 이용하여 눈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로맨틱 이미지의 볼 메이크업은 페일한 색조의 사용이 좋지만, 붉은 기가 적은 따뜻한 피부 톤에는 혈색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퍼플계열의 핑크색상을 사용하되 브라이트한 톤의 피치색상을 함께 사용하여 보다 환하게 보이도록 메이크업 한다.

따뜻한 피부색의 입술은 혈색이 없어 차가운 피부의 입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발색력이 좋다. 채도가 낮으며 명도가 높은 핑크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볼 메이크업과 비슷한 톤의 입술을 완성하면 조화로우움을 느낌과 동시에 베이지계열의 피부 톤이 핑크색상으로 인해 화사해 보인다.

(2) 따뜻한 피부 톤의 상반된 메이크업 연출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따뜻한 피부 톤에 상반된 색채를 사용한 결과는 노란피부에 노란색 계열의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는 더욱 탁해보이며 화사하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눈 메이크업의 경우 베이스가 피부 톤에 맞게 화사하게 정돈이 된 상태라면 청보라계열의 색상도 나쁘지는 않지만 상반된 색채 적용으로 인해 노란색의 베이스와 합쳐져 피부에 혈색이 더욱 없어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볼 메이크업의 경우 혈색있는 피부 톤을 위해 피치계열이 섞인 핑크색상을 이용해야 하지만 반대로 푸른 느낌의 핑크색상을 사용하여 피부가 더욱 혈색이 없어보여 안색이 탁해졌다.

마지막으로 입술메이크업은 베이지계열의 핑크색상을 발라 입술색이 피부와 어울리지 않고 떠 보이는 현상이 보인다.



<그림 6> 따뜻한 피부 톤의 상반된 메이크업 연출

3. 로맨틱 웨딩 메이크업 지각 평가

로맨틱한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9문항에 대해서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색채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표 26> 로맨틱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색채

어울리는 색채	N	(%)
베이지 / 브라운	2	10.00
핑크 / 바이올렛	18	90.0
오렌지 / 카키	0	0
합계	20	100.0

<표 26>과 같이 로맨틱한 이미지 연출시 연관성 있는 색채는 핑크/바이올렛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지/브라운은 10.00%에 그쳤고, 오렌지/카키의 색채는 0%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톤에 상관없이 로맨틱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채는 핑크/바이올렛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로맨틱한 메이크업에 핑크/바이올렛이 대표적 색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7> 차가운 피부 톤에 따른 베이스 색채

베이스 색채		N	(%)
 6.25Y 8.81 7.51	 4.11Y 8.56 7.34	17	85.0
 5.57Y 8.92 5.50	 5.46Y 9.04 4.57	3	15.0
합계		20	100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가운 피부 톤의 따른 베이스의 색채는 노란 기미가 가미되어 있는 옐로의 계열의 베이스 색상이 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핑크 기미가 가미되어 있는 베이스의 색상은 15.0%에 그쳤다.




이와 같이 차가운 피부 톤이 붉은 자색 빛을 띠고 있어 옐로의 계열의 색상으로 자색 빛을 완화 시켜주기 때문이다. 반면 핑크 색상이 가미되어 있는 색조는 옐로우 계열의 베이스보다 채도가 높으므로 차가운 톤의 피부에는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표 28> 따뜻한 피부 톤에 따른 베이스 색채

베이스 색채		N	(%)
 6.25Y 8.81 7.51	 4.11Y 8.56 7.34	2	10.0
 5.57Y 8.92 5.50	 5.46Y 9.04 4.57	18	90.0
합계		20	100





<표 28>과 같이 따뜻한 피부 톤에는 채도가 높은 핑크 계열의 베이스 색상이 잘 어울린다는 응답이 90.0%로 나타났고, 반면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 잘 어울린다는 응답이 10.0%에 그쳤다. 노르스름한 기미가 많은 따뜻한 계열의 피부색에 핑크계열의 색상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얼굴빛이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29> 차가운 피부 톤에 잘 어울리는 색조 메이크업 색상

색조 메이크업 색채	N	(%)
 0.55P 5.02 16.68	11	55.0
 4.67P 5.54 16.98	5	25.0
 8.16P 6.20 18.27	3	15.0
 1.96RP 6.09 15.46	1	5.0
합계	20	100.0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푸른 색상의 색채사용은 차가운 피부 톤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색상의 채도가 높아질수록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30> 따뜻한 피부 톤에 잘 어울리는 색조 메이크업 색상

색조 메이크업 색채	N	(%)
 0.55P 5.02 16.68	0	0.00
 4.67P 5.54 16.98	3	15.0
 8.16P 6.20 18.27	7	35.0
 1.96RP 6.09 15.46	10	50.0
합계	20	100.0

<표 30>과 같이 따뜻한 피부 톤엔 채도가 높은 4번의 색상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채도가 높은 3번 색상이 35.0%, 2번 색상이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뜻한 톤의 피부는 혈색이 없으며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색조 메이크업을 할 시 이미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2) 퍼스널 컬러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표 31> 퍼스널 컬러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변화 정도

이미지 변화	N	(%)
매우 도움이 된다.	19	95.0
보통이다.	1	5.0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
합계	20	100.0

<표 31>과 같이 퍼스널 컬러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의 변화가 매우 도움이 된다가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색채의 사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이미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32> 웨딩 메이크업 후 피부 톤의 변화

구분 피부톤	피부 톤의 변화	N	(%)
차가운 피부 톤	노란기 증가	1	5.0
	노란기 감소	1	5.0
	붉은기 증가	0	0.00
	붉은기 감소	18	90.0
따뜻한 피부 톤	노란기 증가	1	90.0
	노란기 감소	17	0.0
	붉은기 증가	1	0.0
	붉은기 감소	1	10.0
합계		20	100.0

<표 32>와 같이 찬 피부 톤에게 실험메이크업 적용 후 붉은 기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90.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노란기의 증가, 노란기의 감소가 각각 5.0%로 나타났다. 차가운 피부 톤에 옐로우 수치가 높은 베이스색채를 사용함으로 인해 피부 톤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뜻한 피부 톤을 보면 차가운 피부 톤과 반대로 노란기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85.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나머지는 각각 5.0%씩 나타났다.

차가운 피부 톤과 반대로 따뜻한 피부 톤에 핑크계열의 베이스 색채를 사용함으로 인해 노란 피부색상이 개선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표 33> 상반된 색조 활용 후 피부 톤의 변화

구분 톤	피부 톤의 변화	N	(%)
차가운 피부 톤	노란기 증가	0	5.0
	노란기 감소	5	20.0
	붉은기 증가	15	75.0
	붉은기 감소	0	0.0
따뜻한 피부 톤	노란기 증가	18	90.0
	노란기 감소	0	0.0
	붉은기 증가	0	0.0
	붉은기 감소	2	10.0
합계		20	100.0

차가운 피부에 따뜻한 피부 톤의 색채메이크업 적용 후의 결과는 <표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붉은기 증가가 75.0%으로 나타났고, 노란기 감소가 2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부 톤과 상반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붉은기가 강한 차가운 피부 톤에 핑크계열의 베이스 색채의 사용으로 인해

피부 톤이 개선되어 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뜻한 피부에 차가운 피부 톤의 색채메이크업 적용 후의 결과는 노란기 증가가 90.0%으로 나타났고, 붉은기 감소가 1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따뜻한 피부 톤에 상반된 색채를 사용함으로 인해 노란기미가 많은 따뜻한 톤의 피부의 결점이 커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이미지	N	(%)
로맨틱 이미지	15	75.0
퓨어 이미지	4	20.0
노블 이미지	1	5.0
클래식 이미지	0	0.0
피스플 이미지	0	0.0
합계	20	0.0

실험 메이크업 후 가장 유사한 형용사적 이미지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맨틱이미지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퓨어 이미지가 20.0%, 노블 이미지가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퍼스널컬러에 따른 색채사용과 로맨틱한 이미지의 색채인 핑크/피플의 활용으로 인해 로맨틱한 이미지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표 35> 피부 톤에 따른 색채메이크업 후 이미지 수정정도

구분 색채	이미지 수정정도	N	(%)
조화로운 색채	안색이 화사해보인다	15	75.0
	안색이 칙칙해보인다	0	0.0
	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인다	5	25.0
	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이지 않는다	0	0.0
	메이크업이 들떠보인다	0	0.0
상반된 색채	안색이 화사해보인다	1	5.0
	안색이 칙칙해보인다	13	65.0
	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인다	0	0.0
	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이지 않는다	4	20.0
	메이크업이 들떠보인다	2	10.0
합계		20	100.0

피부 톤에 따른 색채메이크업 후 수정정도는 <표 35>와 같다. 안색이 화사해보인다가 75%로 나타났고, 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인다가 2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부 톤에 따른 색채메이크업 적용은 피부 톤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반된 색채를 사용한 메이크업은 안색이 칙칙해보인다가 65.0%로 나타났고, 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이지 않다가 2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부 톤과 상반된 색채메이크업은 이미지 상승효과에 악영향을 끼친

다고 볼 수 있다. 개인색채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의 적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피부색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단점은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는 개인의 욕구와 사상이 중요시 되므로 개개인의 다양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 인격, 개성, 역할을 나타내는 지적기능을 갖는 퍼스널 컬러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요소를 자신 스스로가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한다면 차별화 된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본다.

웨딩 메이크업 또한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결혼식 때에 하는 메이크업이 아닌 신부 개인 색채와 이미지를 고려하여 나아가 전문화된 메이크업으로 신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19세에서 만 35세 미만의 결혼 적령기 여성의 연령, 직업, 학력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선호도를 파악하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하여 피부 톤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의 색채를 활용하여 이미지 상승효과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퍼스널 컬러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차가운 톤과 따뜻한 톤의 육안측정과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측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만 19세에서 만 35세 미만의 미혼여성들에게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도출 한 결과 로맨틱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로맨틱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육안 측정과 분광 측색기 Minolta CM-2600d를 이용하여 피부색을 측정 한 결과 차가운 피부 톤을 갖는 실험자는 블루 언더베이스(blue under

base)의 자색기미가 있는 붉은 피부 톤을 가지고 있었으며 L*, a*, b*의 평균값은 L* 63.50, a* 10.59, b* 16.82으로 cool/light유형에 속하는 데이터 결과를 얻어 실험자의 피부색이 차가운 피부 톤이라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따뜻한 피부 톤을 갖고 있는 실험자는 붉은 기가 낮은 노란색상의 옐로우 언더 베이스(yellow under base)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부색의 평균값은 L*는 66.01, a*는 9.14, b*는 17.59으로 soft/warm유형에 속하는 데이터 결과를 얻어 실험자의 피부색이 따뜻한 톤이라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적색도가 높은 차가운 피부 톤에 어울리는 베이스 색채로는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 가미되어 있는 베이스 색상을 이용하여 메이크업하면 붉은기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황색도가 높은 따뜻한 피부 톤은 핑크 계열의 색상이 가미되어 있는 베이스 색상을 이용하면 피부의 노란 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적색도가 높은 차가운 피부 톤의 색조 메이크업은 붉은 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도가 낮은 푸른 계열의 색상을 이용하여 메이크업하는 것이 붉은 기미를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적색도가 낮고 황색도가 높은 따뜻한 피부 톤은 채도가 높은 계열의 바이올렛 색상을 이용하면 노란 기미의 피부색을 감소할 수 있는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피부 톤과 상반된 색조 메이크업의 결과 피부 톤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부가 칙칙해보이고 정돈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인색채에 맞는 색조 메이크업의 적용은 피부 톤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차가운 피부 톤에 로맨틱한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옐로우 계열의 베이스 색상을 이용하여 피부메이크업

을 하며, 적색도가 낮고 채도가 낮은 푸른 계열의 라벤더 색상으로 색조 메이크업을 한다.

반면 따뜻한 피부 톤에 로맨틱한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핑크 계열의 베이스 색상으로 피부메이크업을 하고, 색조 메이크업으로는 로맨틱의 이미지에 맞게 페일(pale)한 푸른 색조를 쓰되, 적색도가 높고 채도가 높은 색상의 라벤더 컬러를 이용하여 메이크업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대상자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으로 한정되었으며 웨딩 메이크업의 로맨틱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에 따른 색채 메이크업의 제안 및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과 얼굴 부위별 형태의 차이를 적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지각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경호(2005). “이미지메이킹의 개념 정립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1999).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 서울; 명진 출판.
- 김미란(2005). “한국섬유표준색을 이용한 퍼스널컬러 진단도구 연구개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기 외 1인(2008). colorist, 서울; 시대고시기획.
- 김영인 외3인(2005). “개인의 색채이미지 유형에 의한 국내 색조화장품의 스토리 개발과 색채 계획”, 복식 55(6), 2005, pp. 1-14.
- 김혜숙 외 1인(1998).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지희 외 3인(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서울; 경춘사.
- 김수정(2005). "퍼스널 컬러 진단에 따른 메이크업 색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소영(2003). "웨딩드레스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현 외1인(2004).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4(7), pp. 1-12.
- 김주경 외 4인(2010). color story, 경기; 교문사.
- 김효정 외 3인(2006). wedding coordination, 서울; 청구문화사.
- 박선희(2007). "20세기 초 회화작품의 컬러이미지 분석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화순(2000). "대학생의 퍼스널컬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복색 이미지 평가", 경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화순(2002). "찬 피부색에 대한 의복색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디자인학연구 15(4), pp. 327-336.

배은주(2008). "신부의 추구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은정(2010). "색채이미지와 색조화장의 상관관계 연구",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형자(2002). "웨딩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미영 외3인(2009). Beauty color theory, 서울; 청구 문화사.

신향선(2003). color image making, 서울; 도서출판 국제.

신향선(2002). "퍼스널컬러 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현(2003).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향선(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론 구레비치(2002). 이현주 역, 개인주의의 등장, 서울; 새물결.

안금희(2011). "신부이미지별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경향",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외 2인(2008).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교문사.

이명선 외 2인(2005). 미용색채학, 서울; 군자출판사.

이해영(2004). "색조화장에 있어서 퍼스널 컬러 인지도와 유형별 색채 선호도 조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02). “한국여성의 메이크업 색채 이미지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외3인(2004). Wedding make up, 서울; 훈민사.
- 이윤주(1992). “복식에 있어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2008). “트렌드 변화에 따른 토탈 웨딩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예술평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 외 1인(1981). “한국인 태아의 피부색소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 6(4), pp. 451-460.
- 안중숙, 김정림(2008). "퍼스널컬러 시스템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4(1), pp. 71-84.
- 이정미(2002). "한국여성의 메이크업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 조진아(2007). "개인색채유형 분류에 있어서 피부색 유형과 헤어컬러 이미지와의 관련성 고찰", 한국미용학회, 13(3), pp. 1151-1162.
- 오경희(2010).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웨딩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2008). “여성들의 웨딩 코디네이션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형여(2011).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퍼스널 컬러 분석”,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민희(2007). “웨딩코디네이션의 선호도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훈 외 2인(2004). 색채의 원리와 활용, 서울; 미진사.
- 타타르키비츠 W, 손효주 역(1999). 미학의 기본 개념사, 서울; 미진사.

- 한보현(2009).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색채학회(2001). 색색가지 세상, 서울; 국제.
- 한국색채학회 3(2002). 색이 만드는 미래, 서울; 국제출판사.
- 한명숙, 선정희,(2001).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요소와의 관계”, 한 국미용학회, 7(2), 2001, pp. 73-85.
- 홍미숙(2005). “한국인의 퍼스널컬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I.R.I 색채연구소(2005). Color combination best color selection for beautiful design, 영진닷컴.
- Suzzy Chiazzarl, 진현중 역(2002). Color, 서울; 전원문화사.
- Kevyn Aucoin(1999). making faces, little, brown and company.
- Bobbi brown, 김진영 역(2009). makeup manual, 서울; 중앙m&b.
- Bobbi brown, 안연모 역(2007), living beauty, 서울; 중앙m&b.
- Public art. 2011년 1월호.
- Robert jones, 최민령 역(2008), makeup makeovers, 서울; 도서출판 예림.
- Robert jones, 김민경 역(2008), makeup makeovers : weddings, 서울; 도 서출판 예림.
- My wedding. 2010년 12월호.
- My wedding. 2011년 2월호.
- My wedding. 2011년 4월호.
- My wedding. 2011년 5월호.
- Wedding 21. 2010년 6월호.
- Wedding 21. 2010년 9월호.

ABSTRACT

A study for the synergistic effect on the wedding make up image using colors

Choi, ji-eun

Make up and special effect make up mai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e and art

In today's society in which personal ideologies and individualities have been valued, a personal color as an act of identifying one's unique colors instead of simply one's favorite colors and coloring is something that has gradually become specialized.

According to this trend, wedding makeup is also spotlighting the relationship with colors, and it is important to utilize suitable colors for the skin tone of each individual.

Therefore, this study is to withdraw the preferred images of single women regarding wedding makeup, to classify skin tones according to personal color, and to conduct a tes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makeup from images deduced from a survey. Also,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improving an image with the utilization of colors in accordance with personal color.

The detailed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study undertakes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wedding makeup, personal color, and the effect of improving an image using colors.

Second, the study discovers the characteristics of by classifying cold skin and warm skin using observations with the naked eye and a spectroradiometer, the Minolta CM-2600d.

Third, the study deduces the preferred image regarding wedding makeup through a survey, and proposes color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mage and skin tones by applying the image to the cold skin tone and the warm skin tone.

Fourth, the study is to reveal the effect of improving an image, resulting from the utilization of colors through an evaluation survey.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s a result of deducing a preferred image regarding wedding makeup in single females aged between 19 and 35 from the survey research, they preferred the romantic wedding makeup image in most cases, and the lower their age was, the more they preferred a romantic image.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skin tone using naked eye observation and a spectroradiometer, the Minolta CM-2600d, the cold skin tone had a red skin tone with a purple tint of blue

underbase. Also, the mean values of L^* , a^* , and b^* were L^* 63.50, a^* 10.59, and b^* 16.82; thus, the study obtained a data result most similar to the cool/light type. Thereby, the study deduced a diagnostic result that the skin tone of a model was a cold skin tone.

Meanwhile, the warm skin tone had a yellow underbase which was of yellow color with a low red tint, and concerning the mean value of the skin tone, L^* was 66.01, a^* was 9.14, and b^* was 17.59.

Therefore, the study obtained data results most similar to the soft/warm type, and deduced a diagnostic result that the skin tone of a model was a warm tone.

Fourth, regarding base colors matching a cold skin tone with a high level of red color, the study achieved a result that a red tint was reduced in makeup when using a base color added with yellow group colors, and another result that the yellow tone in the warm skin tone with a high level of yellow color was reduced when using a base color added with pink group colors.

Fifth, concerning the makeup for a cold skin tone with a high red tint, it was effective in reducing a red tint in makeup using blue group colors with a low chroma in order to reduce a red tint. As for a warm skin tone with a low level of red color and a high level of yellow color, it was deduced that there is the effect of improving an image, which can reduce a skin tone with a yellow tint when using violet color with a high chroma.

Sixth, as a result of wearing a color makeup in contrast with a skin

tone, the skin tone was not corrected; thus, the skin looked dark and didn't look neat.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color makeup attuned to personal colors may not only improve a skin tone but also bring about the effect of improving an image, at the same time. In summarizing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wear wedding makeup with a romantic image for a cold skin tone, it is effective to express the skin with yellow group base colors, and to wear color makeup with a lavender color in blue group colors which have a low level of red color and a low chroma. On the contrary, with a view to wearing a wedding makeup with a romantic image for a warm skin tone, it was effective to have a wedding makeup with an enhanced image, when wearing a makeup with pink group base colors, using pale blue colors suitable for a romantic image, and, yet, wearing a makeup using lavender color with a high level of red color and a high chroma.

The following may be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the study limited research subjects to single women with ages that were between 19 and 35, living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areas, and since it is limited to a romantic image of wedding makeup, it would be necessary to propose colors according to various wedding makeup images.

Regarding such limitations of the research, follow-up research may be able to identify a wider array of wedding makeup ima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ors by investigating the extended residential

area of research subjects and diverse skin tones of test takers, and it is also required to conduct practical research with more multilateral and systematic composi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personal colors.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평가 문항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색채를 이용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로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 될 것이며, 학문적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는 웨딩 메이크업에 있어서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활용과 그에 따른 색채를 이용함으로써 이미지 변화를 상승시킨다는 목적으로 하여 여성들의 선호하는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와 그 외, 메이크업의 인지도, 퍼스널컬러에 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지도교수 : 김경희 교수님
연구자 : 최지은 (hyesung925@hanmail.net)

1. 귀하의 연령은?

①19-23세 미만 ②24-27세 미만 ③28-30세 미만 ④31-35세 미만 ⑤36-40세 미만

2. 귀하의 직업은?

①학생 ②전문가 ③사무직 종사자 ④판매 종사자 ⑤서비스 종사자 ⑥기능종사자 ⑦기타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중졸 ②고졸 ③대졸 ④대학원 이상 ⑤기타

4. 웨딩 메이크업 시 피부화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피부 색상은?

①아주 밝게 ②피부 톤보다 밝게 ③피부 톤에 딱 맞게 ④피부 톤보다 조금 어둡게

5. 웨딩 메이크업시 피부화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피부 질감 표현은?

①매트(보송보송하게) ②쉬머(은은하게 반짝이게) ③글로시(oily한 윤기가 나게)

6. 예식 때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던 메이크업을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아니다.

7. 귀하께서는 결혼식에 있어서 웨딩 메이크업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중요하다 ②중요하다 ③보통이다 ④전혀 중요하지 않다

8. 웨딩 메이크업 시 귀하가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색조 화장 ②피부 화장 ③본인의 이미지와 맞는 화장 ④드레스와의 조화

9. 웨딩 메이크업 시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피부표현 ②아이섀도우 ③립스틱 ④볼터치 ⑤속눈썹 ⑥아이라이너 ⑦전체적인 이미지

10. 웨딩 메이크업 시 귀하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변화시켜주는 수정화장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①눈 화장 ②피부 화장 ③볼 화장 ④얼굴 윤곽 화장 ⑤입술 화장

11. 웨딩 메이크업 시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아이섀도우의 질감 표현은?

①매트 ②쉬머(은은하게 반짝이게) ③글리터(입자가 큰 펄)

12. 웨딩 메이크업 시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①퓨어이미지 (Pure image)	②로맨틱이미지 (Romantic image)	③클래식이미지 (Classic image)
		
④노블이미지 (Noble image)	⑤피스풀이미지 (Peaceful image)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등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얼굴색을 주 의미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고유의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고 퍼스널 컬러 인지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3. 귀하는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14. 귀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조를 알고 계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15. 귀하는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이 일치합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16. 귀하는 웨딩 메이크업 시 퍼스널컬러에 따른 신부메이크업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평가 문항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색채를 이용한 웨딩 메이크업 이미지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로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 될 것이며, 학문적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는 차가운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와 따뜻한 피부 톤을 가진 실험자에게 설문 조사에서 얻은 20, 30대 미혼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의 웨딩 메이크업을 시연하였으며, 그와 함께 상반된 색채의 활용하여 메이크업 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피부 톤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실험자에게 공통 된 하나의 ‘형용사적 이미지’를 시연한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설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지도교수 : 김경희 교수님
연구자 : 최지은 (hyesung925@hanmail.net)

<표 1> 실험 자극물 1

차가운 피부 톤의 메이크업 전	차가운 피부 톤의 메이크업 후
	

<표 2> 실험 자극물 2

따뜻한 피부 톤의 메이크업 전	따뜻한 피부 톤의 메이크업 후
	

<표 3> 실험자극물 3

차가운 피부 톤의 메이크업 전	상반된 색채 메이크업 적용 후
	

<표 4> 실험자극물 4

따뜻한 피부 톤의 메이크업 전	상반된 색채 메이크업 적용 후
	

색채관련 문항

1. 로맨틱한 이미지의 웨딩 makeup에 어울리는 색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베이지/브라운 ② 핑크/바이올렛 ③ 오렌지/카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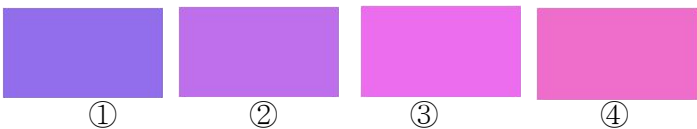
2. 차가운 피부 톤<자극물 1>에 어떤 색조의 베이스 색상을 선택해야 피부 보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따뜻한 피부 톤<자극물 2>에 어떤 색조의 베이스 색상을 선택해야 피부 보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4. 퍼플 계열의 색조 중 차가운 피부 톤<자극물 1>에 어떤 색상의 색조를 사용해야 피부 보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퍼플 계열의 색조 중 따뜻한 피부 톤<자극물 2>에 어떤 색상의 색조를 사용해야 피부 보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스널 컬러 관련 문항

1. 퍼스널 컬러 진단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이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도움이 된다. ②보통이다. ③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그림 1>의 차가운 피부 톤의 실험자에게 웨딩 메이크업 시연 후 피부 톤의 변화는?

①노란기 증가 ②노란기 감소 ③붉은기 증가 ④붉은기 감소

3. <그림 2>의 따뜻한 피부 톤의 실험자에게 웨딩 메이크업 시연 후 피부 톤의 변화는?

①노란기 증가 ②노란기 감소 ③붉은기 증가 ④붉은기 감소

4. <그림 3>의 차가운 피부 톤의 실험자에게 상반된 색채 메이크업 시연 후 피부 톤의 변화는?

①노란기 증가 ②노란기 감소 ③붉은기 증가 ④붉은기 감소

5. <그림 4>의 따뜻한 피부 톤의 실험자에게 상반된 색채 메이크업 시연 후 피부 톤의 변화는?

①노란기 증가 ②노란기 감소 ③붉은기 증가 ④붉은기 감소

이미지 관련 문항

1. 웨딩 메이크업 시연 후의 모습이 보기의 '형용사적 이미지' 중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도가 높기 때문에 헤어는 가장 단순한 스타일로 연출하였으므로 헤어나 드레스, 베일, 티아라의 스타일은 배제하고 메이크업으로만 결정할 것.)

- ①로맨틱 이미지 ②퓨어 이미지 ③노블 이미지
- ④클래식 이미지 ⑤피스플 이미지(그윽한, 정적인 이미지)

2. <그림 1>, <그림2>의 피부 톤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적용 후 이미지의 수정 정도는?

- ①안색이 화사해보인다
- ②안색이 칙칙해보인다
- ③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인다
- ④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이지 않는다
- ⑤화장이 들떠보인다

3. <그림3>, <그림4>의 피부 톤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적용 후 이미지의 수정 정도는?

- ①안색이 화사해보인다
- ②안색이 칙칙해보인다
- ③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인다
- ④피부 톤이 정돈되어 보이지 않는다
- ⑤화장이 들떠보인다